

아주신씨 인물 백과 사전

신내석(申乃錫) 유생/의병

이칭/별칭	지언(知彦), 원재(元齋)
분야	역사/전통 시대, 성씨·인물/전통 시대 인물
유형	인물/의병·독립운동가
지역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도동 3리
시대	조선/조선 후기
집필자	이광우
출생/사망	1691년연표보기 - 출생 몰년 1742년연표보기 - 신내석 사망
활동 시기/일시	1728년연표보기 - 이인좌의 난이 발생하자 의성현에서 의병을 일으킴
출생지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도동리
성격	유생 의병
성별	남
대표 경력	의병장

[정의]

조선 후기 의성 출신의 유생이자 의병.

[가계]

본관은 아주(鵝洲), 자(字)는 지언(知彦), 호는 원재(元齋). 아버지는 신준(申埈), 어머니는 손지효(孫至孝)의 딸 경주 손씨(慶州 孫氏)이고, 할아버지는 신희도(申欽道), 증조할아버지는 상호군(上護軍) 신한(申儻)이다. 처는 장원준(蔣元浚)의 딸 아산 장씨(牙山 蔣氏)이다.

[활동 사항]

신내석(申乃錫)[1691~1742]은 1691년(숙종 17) 경상도 의성현 원흥(元興)[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도동리]에서 출생하였다. 어려서부터 효성이 뛰어나, 이와 관련된 일화가 전해진다. 13세 때에 부친이 병으로 위독하여 안동으로 직접 약을 구하러 갔는데, 낙동강 물이 홍수로 불어 건너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사공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하자, 신내석의 효성에 감동한 사공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배를 저어 강을 건널 수 있었다고 한다. 또한 부모상으로 여묘 살이 할 때에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조석(朝夕)으로 곡(哭)을 하였기에, 그 산을 효려산(孝廬山)이라 불렀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1728년(영조 4) 이인좌(李麟佐)가 난을 일으키자 의성 지역에서 의병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18세기 후반 안동에서 편찬한 『무신 창의록(戊申 倡義錄)』에 따르면, 신내석은 난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1728년 3월 2일 신렴(申濂), 신희(申濬) 등과 더불어 의성현의 여러 유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린 뒤,

창의를 계획하고 동지를 격려했다고 한다. 신내석은 같은 고을 출신의 신덕기(申德沂), 이경재(李慶載), 박사윤(朴師尹), 박계령(朴桂齡)과 더불어 이 책의 「의성 의병 군문 좌목(義城 義兵 軍門 坐目)」에 수록되어 있다. 1742년(영조 18)에 사망하였다.

[학문과 저술]

죽보에는 유고(遺稿)가 남아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묘소]

경상북도 의성군 북쪽에 위치한 여사현(如土峴)에 묘가 있다.

신달도(申達道)

이칭	형보(亨甫), 만오(晩悟)	분야	조선시대사
유형	인물	시대	조선
성격	문신	성별	남
출생일	1576 년(선조 9)	사망일	1631 년(인조 9)
본관	아주(鵝州: 지금의 경상남도 거제)		
경력	사간원정언, 지평, 사헌부장령		
관련사건	정묘호란		

[상세정보]

- 1610년 - 신달도 생원시에 급제
- 1631년 - 신달도 홍문관 수찬에 임명
- 1646년 - 신달도 도승지에 추증
- 1658년 - 신달도 단구 서원에 배향
- 출생지 경상도 의성현 도암리 -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한양 아현 -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 수학지 장천 서원 - 경상북도 의성군 춘산면 빙계리
도산 서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
- 부임 전주 판관 - 전라북도 전주시
- 묘소 오동산 -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 사당 단구 서원 -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분토리
- 관직 홍문관 수찬
- 조선시대 사간원정언, 지평, 사헌부장령 등을 역임한 문신.

[정의]

조선 후기 의성 출신의 문신.

[가계]

본관은 아주(鵝洲). 자(字)는 형보(亨甫), 호는 만오(晩悟). 신준정(申俊禎)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참봉 신수(申壽)이고, 아버지는 신흘(申屹)이며, 어머니는 박윤(朴倫)의 딸 순천 박씨(順天 朴氏)이고, 부인은 이난수(李鸞壽)의 딸 전주 이씨(全州 李氏)이다.

[활동 사항]

신달도[1576~?]는 어려서 족형(族兄) 신흥도(申弘道)에게 학문을 배우고, 16세에는 장천 서원(長川 書院)[의성 빙계 서원(氷溪 書院)]에서 독서하였다. 임진왜란 이 일어나자 부친을 모시고 황학산(黃鶴山)에 피난했다고 한다.

1596년(선조 29) 안동의 도산 서원(陶山 書院)에 있는 조목(趙穆)을 찾아가 학문을 배우고, 역동서원(易東 書院)에서 공부를 하였다. 부친의 권유로 장현광(張顯光)의 문인이 되기도 했다. 1603년(선조 36) 장현광이 의성 현령(義城 縣令)으로 부임했을 때, 향교에서 수업을 받았고, 광해군 시절 선산(善山)과 인동(仁同)을 수시로 찾아가 학문을 배웠다.

1610년(광해군 2) 생원시에 급제하고, 1623년(인조 1) 정시(庭試)에 장원급제하였으며, 그해 성균관 전적(成均館 典籍)과 성환도 찰방(聖歡道 察訪)에 임명되었다. 1624년 이괄(李适)의 난이 일어나자 국왕을 모시고 공주(公州)까지 따라 갔으며, 그 해 전주 판관(全州 判官)에 제수되고 시폐(時弊)를 열 가지 조목으로 요약하여 「진시폐십조소(陳時弊十條疏)」를 올렸다. 이 후 형조(刑曹)와 예조(禮曹)의 정랑(正郎)을 거쳐, 1627년 사간원 정언(司諫院 正言), 사헌부 지평(司憲府 持平), 예조 정랑(禮曹 正郎), 시강원 문학(侍講院 文學)과 필선(弼善), 사헌부 장령(司憲府 掌令)을 지냈다. 1627년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윤황(尹煌)과 함께 적극적으로 척화론을 주장했었다.

전란이 끝나고 4월에는 왕명으로 가도(槲島)에 머물고 있는 명나라 장수 모문룡(毛文龍)을 찾아가서 후금(後金)과의 화의가 본의 아님을 피력하였으며, 조선인들을 함부로 죽이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척화를 강력히 주장함과 동시에 인조반정의 공신 세력과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그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했이라며 공신들을 공격하였다.

특히 인조반정의 유력한 공신 이귀(李貴)를 맹렬히 공격했는데, 이로 인하여 1629년 여러 대신과 중신들에게 배척당하기도 하였다. 1631년(인조 9) 홍문관 수찬(弘文館 修撰)이 되었으나, 한양 아현(阿峴)[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의 거처에서 세상을 떠났다.

[학문과 저술]

1927년 신흥기(申鴻基)가 의성의 신석기숙(申錫基塾)에서 간행한 『만오집(晩悟集)』 10권 5책이 전하고 있다. 『만오집』 권5의 「가도봉사시문견계(槪島奉使時間見啓)」, 권7의 「강도일록(江都日錄)」 등은 정묘호란을 겪으면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으로, 당시 정국을 살펴보는 데 좋은 자료가 된다.

[묘소]

묘소는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오동산(梧桐山)에 있다.

[상훈과 추모]

1646년(인조 23) 도승지(都承旨)에 추증되고, 1858년(철종 9) 단구서원(丹邱書院)[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분토리]에 배향되었다.

만오집(晩悟集)

정의

조선시대 학자 신달도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937년에 간행한 시문집.

내용

2권 1책. 목판본. 1937년 후손 의창(義昌) 등이 편집, 간행하였다. 권두에 송준필(宋浚弼)의 서문과 권말에 후손 재호(在昊)·익주(翊周)의 발문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동국대학교 도서관 등에 있다.

권 1에 시 68수, 소(疏) 1편, 서(書) 12편, 권 2에 제문 10편, 축문 2편, 정문(呈文) 7편, 부록으로 만사·가장·묘갈명 등이 수록되어 있다.

시는 감회와 경관을 묘사한 것이 많으며, 운율이 아름답고 품격이 높다. 서(書)의 「상우복선생 문목(上愚伏 先生問目)」은 스승 정경세에게 상례(喪禮)에 대하여 질의한 내용이며, 소(疏)의 「언사소(言事疏)」는 당쟁의 폐단을 지적하고 정치의 공정성을 역설한 상소문이다.

「정방백문(呈方伯文)」은 황희(黃喜)를 모시는 사당과 도남서원(道南書院)을 보수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경비의 지원을 요청한 것이며, 「정수의문(呈繡衣文)」은 흉년으로 인하여 기근이 심해 지자 조세와 잡역을 감면하여줄 것을 진정한 글이다. 이 정문들은 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수록해놓은 것으로서 참고자료가 된다.

편찬및간행

저자의 유문은 사후 약 300 여 년 동안 간행되지 못하고 초고 상태로 전해져 왔다. 동생 申悅道가 1653 년에 행장, 1656 년에 묘지를 짓고 연보를 편차해 두었고, 증손 申生濂이 李玄逸에게 묘갈명을 받은 일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후손들이 저자의 문집을 간행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후손 申鴻基와 申錫基 등이 가장초고를 바탕으로 수집 편차하여 1927 년에 慶北 義城郡 召文面 道境洞에 있던 申錫基의 塾舍에서 활자로 문집을 인행하였다.《초간본》이 본은 규장각(古 819.5-Si61m),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D1-A939), 국사편찬위원회(D3B-113),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장서각(D3B-506),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1993 년에 14 세손 申大源이 초간본을 대본으로 국역한 「晚悟文集」을 간행하였다.

본서의 저본은 후손 申鴻基가 1927 년에 활자로 인행한 초간본으로 규장각장본이다. 본 영인 저본 중 권 8 의 제 4 판은 卷次가 '七'로, 권 10 의 제 29 판은 板次가 '三十九'로 오기되어 있으며, 권 10 의 제 50 판은 권차가 누락되어 있다.

墓碣銘(李玄逸 撰) 등에 의함

구성과내용

본집은 10 권 5 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문과 발문은 없다. 권수에 총목이 있고 권마다 목록이 실려 있다.

권 1 은 시(118)이다. 경광을 읊은 시, 차운시, 회고시, 만시 등이 고루 섞여 있다. <城洞卽事>는 임진왜란 때 피란했던 黃鶴山 성동에서의 일을 읊은 것이다. <敬次月川先生下示韻>은 1596 년 도산서원에 갔을 때 趙穆이 心學의 요체를 알려 주며 지어 준 시를 차운한 것으로 배움의 기쁨을 나타낸 것이다. <送李從事征西>는 1618 년 명나라에서 구원을 요청하자, 姜弘立의 막하로 출전하는 李民寯을 전송하는 시이다. <思歸>는 全州 判官으로 재직할 때 지은 것으로 객지에서의 쓸쓸한 심정을 읊은 것이다. <江都記事十八首>는 정묘호란때 인조를 모시고 강화도로 피란 갔을 때 지은 것으로 전쟁의 상황과 전쟁에 대한 저자의 생각 등을 읊은 것이다. 만시는 柳成龍, 朴而章, 李民寔, 金奉祖 등에 대한 것이다.

권 2~3 은 疏(13), 劄(1)이다. 권 2 에는 <陳時弊十條疏>만 실려 있는데 1626 년에 올린 것으로 어진 이를 등용할 것, 守令을 잘 택할 것, 인심을 수습할 것, 풍속을 후히 할 것, 諫諍의 길을 열어 놓을 것, 庶獄을 신중히 할 것, 貢賦를 균등하게 할 것 등 10 조목에 대해 의견을 진술한 것이다. 권 3 은 지평·문학·필선·장령 등을 사직하는 상소와 여러 상황에 대한 소회를 아뢴 것 등이다. <寇退後陳所懷疏>는 정묘호란이 끝나고 소회를 아뢴 두 건의 상소로, 서약을 맺은 것은 종묘사직의 수치이고 백성들의 씻기 힘든 울분이니 대소 신료들이 힘을 다하여 自彊策을 세워야 한다고 한 것이다. <請賑西路饑民疏>는 1628 년에 德陵과 安陵을 봉심하고 나서 西路의

굶주린 백성들이 關北으로 유입되는 상황을 아뢰고 구제해 주기를 청한 것이다.

〈伸救司諫尹煌筭〉는 화친은 일국의 굴욕이라고 하다가 삭탈관직되어 유배된 윤항을 변론한 것으로 三司에서 연명으로 올린 것이다.

권 4~5 는 啓(44), 公緘(1), 畠文(2)이다. 계는 주화론을 주장한 崔鳴吉을 律文대로 처분할 것, 윤항을 체차하라는 명을 거두어 줄 것, 적을 막지 못한 도원수 張晩을 遠竄할 것, 諸宮家의 魚鹽船稅 등을 혁파할 것, 羅萬甲을 원찬하라는 명을 거두어 줄 것, 張維를 羅州 牧使에 보임하라는 명을 거두어 줄 것, 豐呈宴에 妓樂을 보내지 말 것, 地主를 무고한 竹山의 軍民들을 처벌할 것 등을 아뢴 것이다. 권 5 의 〈榎島奉使時間見啓〉는 1627 년에 접반사 元鐸과 榎島에 들어가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 도로에서 보고 들은 것을 날짜별로 적어 아뢴 것이다. 공함은 사헌부의 추고에 대해 자신을 변론한 것이다. 정문은 毛文龍에게 보내는 것으로, 적에게 붙어 침략을 행하는 변방의 백성들을 살육할 때 선량한 백성을 보호해 줄 것을 청한 것이다.

권 6 은 書(35)이다. 조목, 장현광, 정경세, 이호민 등과의 편지이다. 1605 년에 올린 〈上月川先生〉은 조목에게 누누이 가르침을 주고 장려해 주는 것을 고마워하며 道를 궁구하는데 힘쓰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한 것이다. 1623 년에 올린 〈上旅軒先生〉은 장현광의 理氣說이 李滉의 定論과 부합하지 않는 것 같다고 한 것이다. 1629 년에 올린 〈上鄭愚伏〉은 世道를 바로하려면 우선 임금의 마음을 바로잡아 어진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1623 년에 올린 〈上李五峯〉은 李好閔에게 기강을 바로 세우고, 光海朝 때의 죄인을 엄히 다스리고, 오랑캐를 막을 계책을 세울 것을 청한 것이다. 〈答崔詔齋〉는 최현에게 보낸 것으로 「학봉집」의 교정에 참여해 달라는 청을 승낙한 것이다. 〈與黃大進〉은 黃宗海에게 보낸 것으로, 竹林書院에 鄭逵와 金駟孫을 追享할 때는 세대보다 道學이 우선하므로 정구를 먼저 모시는 것이 마땅할 것 같지만 장현광에게 여쭙어 처리하라는 내용이다. 〈與洪副學〉은 洪瑞鳳에게 보낸 것으로 號牌法의 시행 시기를 잘 살펴서 하라고 한 것이다.

권 7 은 雜著(4)이다. 〈南山問目〉은 아우 申悅道와 함께 남산에 머무르고 있는 장현광을 찾아가 경전을 논의한 것, 장현광의 저술인 「易學圖說」을 보고 理氣에 대해 논의한 것, 「心經」을 강론하며 四端七情論에 대해 논의한 것 등이다. 〈榜諭境內文〉은 전주 판관으로 재직시 풍습을 교화하기 위해 붙인 방문으로 呂氏鄉約에 의거하여 미풍을 회복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江都日錄〉은 정묘호란의 전말을 기록한 일기로, 호란 초기 조정에서 강화도로 피란 여부를 논의한 것, 1 월 17 일 적군이 義州를 침입했다는 평안 감사 尹暄의 장계 등을 날짜별로 기록하였다.

권 8 은 序(5), 記(2), 跋(1), 箴(2), 表(1), 箋(5), 哀辭(1), 告辭(2), 祭文(5), 墓誌(1), 行狀(3)이다. 서의 〈送金孝仲越北幕序〉는 함경도로 가는 金樂祖를 전송한 것이고, 〈送金孝徵遊淸凉山序〉는 淸凉山으로 유람을 떠나는 金應祖를 배웅하며 지은 것으로, 이황의 자취와 정대한 가르침을 받으라는 내용이다. 〈送許仲開之任蓬萊郡序〉는 高城 郡守로 부임하는 許啓를 전송하며 지은 것으로 金剛山이 있는 곳으로 부임하니 신선의 자취를 볼 수 있겠다며 부러워하는 내용이다.

〈懶齋記〉는 동생 申悅道の 당호인 '懶齋'에 붙인 것으로 '懶' 字의 진실된 뜻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成歡郵館重創記〉는 성환도 찰방으로 부임하여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관사를 중창하고 지은 것이다. 〈力學箴〉은 9 세에 지은 것으로, 하늘이 준 人性은 聖賢과 다를 것이 없으니 그들의 자취를 따르겠다는 내용이다. 〈本朝請由海路入貢表〉는 淸이 만주 지역을 점령하였으니 바닷길로 입공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다. 〈本朝訓練都監進金應河忠烈錄箋〉은 훈련도감에서 봉진한 김응하의 「충렬록」을 진언하며 올린 것으로, 醫巫閭를 회복하려다 전사한 김응하의 충절을 기린 것이다. 〈金而和哀辭〉는 장현광의 문인이었던 金中淸의 죽음을 애도한 글이다. 〈焚黃告辭〉는 세자시강원 좌필선이 되었을 때 부친에게 좌승지가 증직되고 모친에게 숙부인의 칭호가 내려지자 이를 고하는 것이다. 제문은 趙穆, 鄭復享, 申弘道 등에 대한 것이다. 이어 백부 申佺의 묘지, 부친과 족형 申弘道の 행장, 司空精의 실기가 실려 있다.

권 9 는 동생 申悅道가 편찬한 年譜이다. 1656 년에 지은 간략한 後識가 첨부되어 있다.

권 10 은 附錄으로 申悅道가 1653 년에 지은 行狀, 李玄逸이 지은 墓碣銘, 申悅道가 1656 년에 지은 墓誌, 金尙琦·崔暉·李民寅 등이 지은 祭文 8 편, 張顯光·李好閔·金堉·李俊·尹煌 등이 지은 挽章 52 편이다.

끝 부분에 1927 년에 申鴻基가 발행자가 되어 慶北 義城郡 召文面 申錫基의 塾舍에서 발행한다는 刊記가 붙어 있다.

신두수(申杜洙)

유형	인물/의병·독립운동가	
지역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구미리	
시대	근대/근대	
출생	1927년 12월 15일연표보기	
수학	1944년 4월 - 안동 농림 학교 비밀 결사 명성회 가입	
활동	1944년 11월 - 안동농림학교 비밀 결사 조선 회복 연구단 가입, 무장봉기 계획 수립 1945년 2월 - 소위 치안 유지법 위반으로 구속됨	
몰년	1986년 12월 9일연표보기	
추모	2001년 - 대통령 표창 추서	
성격	독립운동가	성별 남
경력	비밀결사 명성회 조직	

[정의]

일제 강점기 의성 출신의 독립운동가.

[활동 사항]

신두수(申杜洙)[1927~1986]는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구미리 출신으로, 경주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1944년 4월 안동 농림 학교 학생들이 조직한 비밀 결사 명성회(明星會)에 가입하였다. 명성회는 일제의 식민 정책을 비판하고 이정선(李貞善)·권태염(權泰琰)·정현모(鄭賢模)와 함께 정세를 틈타 무장 봉기하여 독립을 쟁취하려고 하는 비밀 결사이다. 신두수는 명성회의 기관지 『새벽』을 한글과 일문(日文)으로 간행하여 대구 사범 학교·경주 중학교·안동 농림 학교 등의 학생들에게 배포하여 항일 사상을 고취하였다. 그는 『새벽』의 논설 주필로 일본이 연합군에 의하여 곧 패망한다는 논조를 펼쳐 항일 정신을 고취하였다.

1944년 11월 명성회는 조선 회복 연구단(朝鮮恢復研究團)과 연합하여 1945년 2월 17일 무장 봉기를 결행할 계획을 세우고 자금 조달과 동지 규합에 진력하였다. 조선 회복 연구단은 1943년 8월 안동 농림 학교 학생들이 상해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서 국내로 보내는 단파 방송을 듣고 태평양 전쟁의 상황과 조선의 독립을 믿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직한 비밀 결사였다. 그들은 안동 농림 학교 무기고에 있는 총으로 안동 경찰서와 안동 헌병 파견대를 기습 공격하여 점령하고, 나아가 철도와 통신망을 파괴한 후 의성으로 진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1945년 2월 27일을 거사일로 결정하였으나, 2월 초 이 계획을 감지한 일본 경찰에 의해 관련자들이 체포되었다. 신두수도 이때 체포되었다.

신두수는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5개월간의 옥고를 치르다가 8·15 해방을 맞이하여 8월 16일 기소 유예 처분을 받고 출옥하였다. 8·15 해방 후 의성 봉양 중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후진 양성에 힘썼다.

[상훈과 추모]

2001년에 대통령 표창이 추서되었다.

신면주(申冕周) 문신

이칭	성지(成之), 시남(市南)	분야	유교
유형	인물	시대	조선
성격	문신, 학자	성별	남
출생일	1768년(영조 44)	사망일	1845년(헌종 11)
본관	아주(鵝洲)	저작	시남유고
경력	이조좌랑, 사헌부지평, 함경도도사		

출생 1768년 7월 22일연표보기 - 신면주 출생

활동 1798년 - 신면주 생원시에 급제

1805년 - 신면주 별시 문과에 급제
 1805년 - 신면주 승문원 정자에 임명
 1810년 - 신면주 울봉도 찰방에 임명
 1818년 - 신면주 성균관 전적에 임명
 1818년 - 신면주 병조 좌랑에 임명
 1821년 - 신면주 사간원 정언에 임명
 1822년 - 신면주 이조 좌랑에 임명
 1825년 - 신면주 용양위 부사과 겸 선전관에 임명
 1826년 - 신면주 사헌부 지평에 임명
 1826년 - 신면주 함경도 도사에 임명
 1828년 - 신면주 홍문관 교리에 임명
 1829년 - 신면주 홍문관 수찬에 임명
 1829년 - 신면주 시강원 필선에 임명
 1829년 - 신면주 홍문관 부수찬에 임명
 1829년 - 신면주 홍문관 교리에 임명
 1830년 - 신면주 사헌부 집의에 임명
 1830년 - 신면주 홍문관 수찬에 임명
 1830년 - 신면주 홍문관 부교리에 임명
 1831년 - 신면주 사헌부 집의에 임명
 1834년 - 신면주 봉평관에 임명
 1835년 - 신면주 홍문관 부수찬에 임명
 1835년 - 신면주 사헌부 집의에 임명
 1835년 - 신면주 용양위 부호군에 임명
 1835년 - 신면주 승정원 동부승지에 임명
 1836년연표보기 - 신면주 낙향

물년 1845년연표보기 - 신면주 삼○
 출생지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도동리
 거주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도동리
 묘소 경상북도 의성군 단촌면 관덕리 안영산
 대표 관직 동부승지

[정의]

조선 후기 의성 출신의 문신.

[가계]

본관은 아주(鵝洲), 초명은 봉조(鳳朝), 자는 성지(成之), 호는 시남(示南)이다. 아버지는은 통덕랑

(通德郎) 신흥교(申弘教), 어머니는 풍창군(豊昌君) 류유(柳濡)의 딸인 공인(恭人) 풍산 류씨(豊山柳氏), 조부는 통덕랑 신허(申煥), 증조부는 신중모(申重模), 처는 성언병(成彦秉)의 딸 숙부인(淑夫人) 창녕 성씨(昌寧成氏), 후처는 이제동(李濟東)의 딸 숙부인 진성 이씨(眞城李氏)이다.

[활동 사항]

신면주(申冕周)[1768~1845]는 1768년(영조 44) 7월 22일 경상도 의성현 교전리(校前里)[현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도동리]에서 출생하였다. 어릴 때부터 학문에 두각을 보여 5세에 글자를 알았고, 7~8세에 글을 지을 줄 알았으며, 14세 때에는 도내 백일장에서 장원을 차지하였다. 1791년(정조 15)에는 형 신면조(申冕朝)와 함께 어부정(漁父亭)을 짓고 강학하는 장소로 삼았다고 한다.

1798년(정조 22) 생원시에 합격하여, 이미 생원시에 합격했던 신면조와 함께 형제가 나란히 성균관의 적(籍)을 가지게 되었다. 1805년(순조 5)에는 별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뒤, 곧 승문원 정자(承文院正字)에 임명되면서 본격적인 관직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1810년(순조 10) 울봉도찰방(栗峰道察訪)에 임명되었으나, 얼마 되지 않아 건강을 이유로 사직하였다. 1818년(순조 18)에 다시 성균관 전적(成均館典籍)과 병조 좌랑(兵曹佐郎)에 임명되었으나, 형 신면조와 모친, 그리고 외아들 신명협(申命協)의 상사가 잇따라 일어나 고향에 머물러야 했다.

1821년(순조 21)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1822년(순조 22) 이조 좌랑(吏曹佐郎)에 임명되었으며, 1825년(순조 25) 용양위 부사과(龍驤衛副司果)로 선전관(宣傳官)을 겸직하였다. 이어 1826년(순조 26)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과 함경도 도사(咸鏡道都事)를 역임한 후, 1828년(순조 28) 홍문관 교리(弘文館敎理)에 임명되어 경연 검토관(經筵檢討官)과 춘추관 기주관(春秋館記注官)을 겸임하였으나, 당시 대리청정 중이었던 효명 세자(孝明世子)에게 병환을 이유로 상소를 올리고 사직하였다. 1829년 홍문관 수찬(弘文館修撰)에 임명되어 부임하였으며, 이어 시강원 필선(侍講院弼善), 홍문관 부수찬(弘文館副修撰), 홍문관 교리 등에 차례로 임명되며 세자와 서연(書筵)에서 학문을 강론하기도 했다.

1830년(순조 30) 효명세자가 세상을 떠나자 만장(挽章)을 지었다. 이어 이듬해까지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 홍문관 수찬, 홍문관 부교리, 다시 사헌부 집의 등에 임명되나 병환으로 오래 관직에 있지를 못하였다. 한편, 신면주는 효명세자 사후 홍문관에 있으면서 효명세자의 측근들을 공격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들이 효명 세자 대리청정 때 전권을 휘둘렀다는 이유에서이다. 우선 단독으로 상소를 올려 효명 세자의 최측근이었던 김로(金鏐)와 그와 체결한 이숙들의 처벌을 요구하였다. 또한 김노경(金魯敬)의 국청을 요구하는 삼사(三司)의 합계(合啓)에 참여하기도 했다.

1834년(헌종 즉위년) 순조 장례 때 봉폐관(封閉官)이 되었으며, 그 공으로 가자(加資)되었다. 1835년(헌종 1) 홍문관 부수찬이 되어 헌종을 모시고 여러 신하들과 『소학(小學)』을 강론하였으며, 이어 사헌부 집의, 용양위 부호군(龍驤衛副護軍), 승정원 동부승지(承政院同副承旨)에 임명되었으나, 다시 병환이 도져 사직을 요청하였고, 헌종은 사직하는 신면주에게 『척사윤음(斥

邪綸音)』을 내렸다. 이 책은 당시 유행하는 천주교를 배척하기 위해 내린 율음을 기록한 것이다. 은퇴 후 고향으로 낙향하여 학문 연구와 후진 양성에 주력하였다. 1845년(헌종 11) 8월 18일 세상을 떠났다.

[학문과 저술]

이상정(李象靖)의 학통을 계승한 가학을 이어 받았다. 학문이 뛰어나 당시 영남 출신으로 드물게 홍문관의 여러 관직을 역임하였으며, 수시로 경연·서연에 참석해 학문을 강론하였다. 유고(遺稿)인 4권 1책의 『시남선생유고(市南先生遺稿)』가 전해진다. 이 책은 4세손 신석기(申碩基)가 1981년 편집·영인한 것이다. 여기에는 신면주가 홍문관 교리직을 사직하며 올린 상소문, 명승지를 유람하고 작성한 기행문, 그리고 1830년(순조 30) 효명세자(孝明世子)의 장례 때 지은 「왕세자만(王世子挽)」 등이 수록되어 있다.

[묘소]

『아주 신씨 대동보』에는 단촌면 은향촌(銀香村) 안영산(安永山)[현 경상북도 의성군 단촌면 관덕리]에 묘소가 자리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시남선생유고(市南先生遺稿)

정의

조선후기 문신·학자 신면주의 시·계·서(書)·제문 등을 수록한 시문집.

내용

4 권 1 책. 영인본. 1981년 4대손 석기(碩基) 등이 편집, 영인하였다. 권두에 김원대(金元大)의 서문과 권말에 족예(族裔) 재우(在雨)의 발문이 있다.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있다.

권 1에 시 161수, 권 2에 소(疏) 1편, 계(啓) 7편, 권 3에 서(書) 5편, 제문 8편, 축문 5편, 송(頌) 1편, 행장 3편, 서(序) 1편, 기(記) 2편, 발문 1편, 상량문 1편, 권 4는 부록으로 만사 3편, 제문 12편, 유사·행장·묘갈명 각 1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그밖에 권외 부록으로 박세환의 유사역문과 유묵·묘소전경·교지·유품 등의 사진이 있다.

시는 「강태극도설(講太極圖說)」 등 유가의 학설과 관련된 것, 「동고관등경차백씨운(東臯觀燈敬次伯氏韻)」 등 차운시와 만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가운데 「왕세자만(王世子挽)」은 1830년(순조 30) 왕세자의 장례 때 지은 배율 140운의 시로서, 조정의 신하들이 감복하여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기행시로 「속리산법주사배백씨차제우운(俗離山法住寺陪伯氏次諸友韻)」 「문장대(文藏臺)」 「고정(古鼎)」 「금강굴(金剛窟)」 「천불암(千佛庵)」 등이 있다.

소의 「사교리소(辭校理疏)」는 1828년 교리를 사직하며 올린 충언(忠言)의 글로서 끝에 성학사도(聖學四圖)가 부기되어 있다. 계는 경연관으로 입시하여 왕·왕세자와 『서전(書傳)』 『소학』 등을 강론한 내용이다. 흥문관에서 활동한 저자의 성리학적 인식을 알 수 있다.

신면형(申冕滢) 학자

이칭/별칭	선장(善章), 남헌(楠軒)		
분야	역사/근현대, 성씨·인물/근현대 인물		
유형	인물/문인·학자		
지역	경상북도 의성군 춘산면 금오리		
시대	근대/개항기		
출생	1832년 5월 24일		
	1902년 - 부호군에 임명		
몰년	1908년 5월 1일연표보기 - 사망		
출생지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도동리		
이주지	경상북도 의성군 춘산면 금오리		
묘소	경상북도 의성군 춘산면 금곡리		
성격	학자	성별	남
본관	아주(鵝洲)	대표 관직	부호군

[정의]

개항기 의성 출신의 학자.

[가계]

본관은 아주(鵝洲). 자는 선장(善章), 호는 남헌(楠軒). 신정모(申貞模)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신지현(申之炫)이고 아버지는 신석교(申奭敎)이며, 어머니는 남양 홍씨(南陽 洪氏) 홍윤국(洪綸國)의 딸이다. 부인은 전주 유씨(全州 柳氏) 유성문(柳星文)의 딸이다.

[활동 사항]

신면형(申冕滢)[1832~1908]은 어렸을 때 총명하고 덕이 있었으며, 성장함에 따라 고을의 사림들이 명망 있음을 칭송하였으나, 과거에 뜻을 버리고 중년에 오목(梧木)[현 경상북도 의성군 춘산면 오목리]으로 이주하여 학문 연구와 후진 양성에 주력하였다.

1894년(고종 31) 동학 농민 운동이 일어나자 향리에서 민보군(民堡軍)을 이끌었다. 의성 지역은 1894년 8월 농민군에 의해 점령되었으며, 의성의 전직 관료와 유생들이 민보군을 결성하여 이에 항거하였다. 그는 이때 격문을 돌리고 향리의 장정들을 모아 민보군을 결성하여 농민군들로부터 의성군 춘산면 일대를 방어하였으며, 장기현(張鬐縣)에서 장정들을 이끌고 온 정치익(鄭致

益)과 합류하였다. 이후 전열을 갖추어, 영남 지역에서의 활동이 미약했던 농민군을 퇴각시키는 데 공을 세웠다. 이 공으로 1902년(광무 6) 통정대부(通政大夫) 부호군(副護軍)에 제수되었다. 말년에는 시세가 난국이라 하여 고향에서 은둔하였다.

[학문과 저술]

동학 농민 운동 때 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한 활약을 기록한 『갑오 동고록(甲午 同苦錄)』을 엮었다고 전해진다. [묘소] 묘는 처음 사미동(思美洞) 구곡산(九曲山)에 있었으나, 뒤에 금곡동(金谷洞)[현 경상북도 의성군 안평면 금곡리]으로 옮겼다. [상훈과 추모] 1996년 「남헌공 묘갈명(楠軒公 墓碣銘)」이 작성되었는데, 이태능(李泰能)이 지었으며, 김창회(金昌會)가 썼다.

신면횡(申冕鑛) 문신

이칭/별칭	치명(禪鳴), 우은(愚隱)		
분야	역사/전통 시대, 성씨·인물/전통 시대 인물		
유형	인물/문무 관인		
지역	경상북도 의성군	시대	조선/조선 후기
출생	1794년 연표보기 출생		
활동	1837년 별시 문과에 급제		
	1846년 용양위 부사과에 임명		
	1846년 성균관 전적에 임명		
	1846년 종부시 주부에 임명		
	1846년 사헌부 지평에 임명		
몰년	1848년연 사망		
이주지	경상북도 의성군 사곡면 매곡리		
묘소	대감천 - 경상북도 의성군 사곡면 신감리		
성격	문신	성별	남
본관	아주(鵝洲)	대표 관직	사헌부 지평

[정의]

조선 후기 의성 출신의 문신. [가계] 본관은 아주(鵝洲), 자는 치명(禪鳴), 호는 우은(愚隱)이다. 아버지는 신필교(申必敎), 어머니는 류경원(柳景源)의 딸 문화 유씨(文化 柳氏), 할아버지는 신광헌(申光憲), 증조할아버지는 신정표(申正標), 부인은 권정모(權正模)의 딸 숙인(淑人) 안동 권씨(安東 權氏), 후처는 조석교(曹錫敎)의 딸 숙인 창녕 조씨(昌寧 曹氏)로 알려져 있다.

[활동 사항]

신면횡(申冕鑛)[1794~1848]은 1794년(정조 16) 출생하였으며, 의성현 우평(愚坪)[현 경상북도

의성군 사곡면 매곡리]에 거주하였다. 어려서부터 경사(經史)에 능통했고 효우도 돈독했다고 전해진다. 장성해서는 끼니를 제대로 잇지 못하거나 혼인의 때를 놓치는 이웃이 있으면, 전곡(錢穀)으로 돌보아주어 향촌에서의 명망도 높았다.

여러 차례 향해(鄉解)[향시(鄉試)]에 급제하였으며, 1837년(헌종 3)에는 별시 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이어 승문원 부정자(承文院 副正字)가 됨으로써 본격적인 관직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1846년(헌종 12) 용양위 부사과(龍驤衛 副司果)에 제수되었으며, 이어서 성균관 전적(成均館 典籍), 종부시 주부(宗簿寺 主簿), 사헌부 지평(司憲府 持平)을 차례로 역임하였다.

관직에 있으면서 「경연권학소(經筵勸學疏)」 등과 같이 헌종에게 학문의 장려를 청하는 상소를 올렸다. 1848년(헌종 14) 세상을 떠났다.

[학문과 저술]

관직 생활 중 상소문을 비롯하여 약간의 저술이 있었다고 하나 모두 소실되었다고 한다. 한편 『교남지(嶠南誌)』에는 유고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묘소]

묘소는 의성현 사곡면 대감천(大甘川)[현 경상북도 의성군 사곡면 신감리]에 있다. [상훈과 추모] 1973년 이국원(李國源)이 묘갈명(墓碣銘)을 지었다.

신병섭(申炳燮) 의병 독립운동

분야	역사/근현대 , 성씨·인물/근현대 인물	
유형	인물/의병·독립운동가	
지역	경상북도 의성군 춘산면 금오리	
시대	근대/근대	
출생	1892년 4월 18일	
활동	1919년 4월 2일 경상북도 의성군 춘산면 금오동에서 독립 만세 시위 계획 준비중 체포됨 1919년 4월 17일 대구 지방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 받음	
몰년	1933년 6월 22일연표보기	
추모	1986년 대통령 표창 추서	
추모	1990년 건국 훈장 애족장 추서	
성격	독립운동가	성별 남

[정의]

일제 강점기 의성 출신의 독립운동가.

[활동 사항]

신병섭(申炳燮)[1892~1933]은 경상북도 의성군 춘산면 금오리에서 출신으로, 1919년 4월 1일 춘산면 금오동에서 15명의 마을 주민들이 방오발(方五發)의 집에 모여 마을 일을 의논하던 중 '각지에서 독립 만세 운동을 하는 것은 후일 독립될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27일 이웃 고을 청송군 화목 시장(和睦市場)에서도 운동을 하였는데, 특히 우리 마을만이 운동을 아니 하는 것은 면목이 서지 않는 것'이라고 설득하였다. 이에 박수석(朴秀碩)·신종환(申宗煥) 등이 찬동하여 4월 3일 만세 시위를 하자고 결의하였다.

신병섭은 4월 2일 박수석·신종환의 명의로 만세 시위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유하는 서신을 작성하여 같은 마을 김태섭(金台燮)·이태성(李泰成) 앞으로 보내게 하는 등 준비를 하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1919년 4월 17일 대구 지방 법원 의성 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고 복역하다가 1920년 4월 28일 감형으로 출옥하였다.

[상훈과 추모]

1986년에 대통령 표창이 추서되었고, 1990년에 건국 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신봉석(申鳳錫) 문인 학자

이칭/별칭	자족재(自足齋), 석여(錫予)
분야	역사/전통 시대, 성씨·인물/전통 시대 인물
유형	인물/문인·학자
지역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용연리
시대	조선/조선 후기
출생	1631년
활동	1655년 성균관에 입학 1655년 응제시에 장원 급제 1657년 한성시에 급제 1657년 성시에 낙방 1677년 「진오폐소」 올림
몰년	1704년
거주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용연리

묘소	경상북도 의성군 안평면 신안리 의곡		
성격	유학자	성별	남
본관	아주(鵝洲)	대표 관직	선교랑(宣敎郎)

[정의]

조선 후기 의성 출신의 학자.

[가계]

본관은 아주(鵝洲). 자는 석형(錫亨). 호는 자족재(自足齋). 아버지는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를 역임한 신견(申堅), 어머니는 신효성(申孝誠)의 딸인 평산 신씨(平山 申氏), 할아버지는 신사도(申師道), 증조할아버지는 사헌부 감찰(司憲府 監察)을 역임한 신심(申心), 부인은 병자호란 때 순절한 김경(金鏡)의 딸 의인(宜人) 안동 김씨(安東 金氏)이다.

[활동 사항]

신봉석(申鳳錫)[1631~1704]은 1631년(인조 9) 출생하였다. 어려서부터 남다른 덕과 총명을 보여주어, 이와 관련된 여러 일화가 전한다. 7세 때 신봉석이 '학서(學書)'를 청하였는데, 몸이 유약하다며 부친이 허락하지 않았다. 13세 때에는 부친이 통발 속의 물고기를 가져오라 하자, 신봉석은 단지 잉어 한 마리만 가지고 왔다. 부친이 그 까닭을 꾸짖어 묻자 신봉석은 "차마 모두 잡아오지 못했습니다"라고 대답했다는 일화가 있다. 특히 신봉석은 효성이 지극했다고 전해지는데, 부친의 병환 때에는 얼음을 깨어 물고기를 잡아오고 상분(嘗糞)하며 간병하였다. 또한 상을 당해서는 3년 동안 여묘(廬墓)살이를 했는데, 모친이 20리 밖에 떨어져 계셨기에 매일 곡을 하면서도 가서 살피기를 하루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한다. 몸가짐도 단정하여 의리에 맞지 않는 행동이 없었다고 하며, 부모 제사 때가 아니면 함부로 돼지와 닭을 도살하지 않았다.

신봉석은 부친의 계(階)로 인해 선교랑(宣敎郎)에 통적(通籍)되었으며, 일찍이 성균관에 입학하여 공부를 하였다. 1655년(효종 6) 어느 날 성균관의 모든 유생이 삼청동(三淸洞)에 놀러 갔지만, 오직 신봉석과 호남의 한 유생만이 성균관을 지키고 공부하고 있었다. 이때 효종이 불시에 성균관에 내시를 보내어 두 유생에게 친히 시제를 내려 글을 짓게 하니, 둘 중 장원은 신봉석이 차지하였다. 이에 효종은 신봉석에게 집을 내리려 했지만, 대간(臺諫)들의 반대로 종이·붓·먹만 상으로 내렸다. 1657년(효종 8) 한성시(漢城試)에는 급제하였으나, 성시(省試)에는 급제하지 못하였다. 이후 낙향하여 더 이상 과거에 뜻을 두지 않으며, 스스로 '자족재(自足齋)'라는 호를 짓고 편액(扁額) 한 뒤 학문 연구에 주력하였다.

고향에 있으면서도 국사에 대해서는 매우 강개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1677년(숙종 5) 「진오폐소(陳五弊疏)」를 올렸는데, 이는 당시의 폐단을 5개조로 나누어 지적한 것으로, 그 첫째가 세금 징수의 폐단, 둘째가 군역의 폐단, 셋째가 가난한 백성이 더 가난해지는 폐단, 넷째가 영남의 인재를 쓰지 않는 폐단, 다섯째가 인재 등용의 폐단이다. 이어 신봉석은 「의청영남행경대동소(擬請嶺南行京大同疏)」라는 상소를 올려, 대동법(大同法)의 영남 지역 시행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 이후 거처를 지금의 의성군 의성읍 용연리로 옮겼으며, 초택(草澤)에서 머물다 1704년(숙종 30) 세상을 떠났다.

[학문과 저술]

신봉석의 문집으로는 3권 1책의 『자족재유집(自足齋遺集)』이 전한다. 이 책은 신봉석의 8세손 신용섭(申龍燮)이 편찬하였으며, 1921년경 간행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권2에 신봉석이 올렸던 두 편의 상소문인 「진오폐소」와 「의청영남행경대동소」, 그리고 「자족설(自足說)」 등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신봉석은 「자족설」에서 “자족의 도는 높은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마음에 있으니 그것을 취하여도 금하는 것이 없고, 그것을 써도 다하지 않는다.”라며 자족의 의미와 자신의 신념을 풀이해 놓았다.

[묘소]

『자족재집(自足齋集)』 묘갈명에는 현의 서쪽에 위치한 의곡(蟻谷)에 묘소가 자리한다고 하였는데, 현재의 경상북도 의성군 안평면 신안리이다. [상훈과 추모]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용연리에 신봉석의 학문과 효행을 기리기 위한 재사인 자족재(自足齋)가 건립되어 있다.

자족재유집(自足齋遺集)

정의

조선후기 학자 신봉석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919년에 간행한

편찬/발간 경위

1919년 신봉석의 9대손 신용섭(申龍燮)이 편집·간행하였다. 권두에 홍승묵(洪承穆)·오명근(吳明根)의 서문이 있고, 권말에 후손 신입인(申立仁)·신용섭·신행식(申亨植)·신도(申燾) 등의 발문이 있다.

서지사항

3권 1책. 목판본. 규장각 도서·장서각 도서·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있다.

내용

권1에 시 120수, 권2에 소(疏) 2편, 서(書)·제문 각 1편, 권3에 부록으로 행록·행장·묘갈명·서가장 후(書家狀後)·자족재기(自足齋記)·서자족설후(書自足說後) 등이 수록되어 있다.

시는 유려한 운치의 실사적인 묘사시가 대부분이다. 자연을 자신의 은거생활에 결부시켜 읊은 「한거즉사(閒居卽事)」·「유거만영(幽居謾詠)」·「술회(述懷)」·「서회(書懷)」·「우음(偶吟)」, 계절을 따라 시경을 노래한 「입춘(立春)」·「동풍(東風)」·「희우(喜雨)」·「추흥(秋興)」·「중양(重陽)」·「백설(白雪)」·「제야(除夜)」, 학문과 교육을 소재로 한 「학문(學問)」·「유두일시아조(流頭日示兒曹)」·「시아배삼수(示兒輩三首)」, 선비의 기개를 보인 「상국(霜菊)」·「자경(自警)」, 병자호란으로 인하여 비분강개한 우국충정을 나타낸 「비분음이수(悲憤吟二首)」·「우탄(偶歎)」 등이 대표적인 작품이다.

소의 「진오폐소(陳五弊疏)」는 1677년(숙종 3)에 올린 소로, 부렴(賦斂)·군역(軍役)·궁민익곤(窮民益困)·영남편고(嶺南偏苦)·용인편중(用人偏重) 등 당시의 정치 상황에서 다섯 가지 폐단을 지적하여 개혁을 단행할 것을 진달하고 있다. 「의청영남행경대동소(擬請嶺南行京大同疏)」는 당시 영남의 조세(租稅)와 부역이 다른 도에 비하여 과중함을 일일이 설명하고, 그 시정책을 촉구한 내용이다. 서의 「답용궁수조면서(答龍宮倅趙沔書)」는 용궁현감이 정치적인 자문을 구해 오자 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 내용이다.

의의와 평가

조선 후기의 정치적·사회적인 정세를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조선 후기의 학자 신봉석(申鳳錫)의 시문집. 3권 1책. 목판본. 1919년 9대손 용섭(龍燮)이 편집, 간행하였다. 권두에 홍승목(洪承穆)·오명근(吳明根)의 서문이 있고, 권말에 후손 입인(立仁)·용섭·형식(亨植)·도(燾) 등의 발문이 있다.

권1에 시 120수, 권2에 소(疏) 2편, 서(書)·제문 각 1편, 권3에 부록으로 행록·행장·묘갈명·서가장 후(書家狀後)·자족재기(自足齋記)·서자족설후(書自足說後)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시는 유려한 운치로 실사적인 묘사시가 대부분이다. 자연을 자신의 은거생활에 결부시켜 읊은 <한거즉사 閒居卽事>·<유거만영 幽居謾詠>·<술회 述懷>·<서회 書懷>·<우음 偶吟>, 계절을 따라 시경을 노래한 <입춘 立春>·<동풍 東風>·<희우 喜雨>·<추흥 秋興>·<중양 重陽>·<백설 白雪>·<제야 除夜>, 학문과 교육을 소재로 한 <학문 學問>·<유두일시아조 流頭日示兒曹>·<시아배삼수 示兒輩三首>, 선비의 기개를 보인 <상국 霜菊>·<자경 自警>, 병자호란으로 인하여 비분강개한 우국충정을 나타낸 <비분음이수 悲憤吟二首>·<우탄 偶歎> 등이 대표적인 작품이다.

소의 <진오폐소 陳五弊疏>는 1677년(숙종 3)에 올린 소로, 부렴(賦斂)·군역(軍役)·궁민익곤(窮民益困)·영남편고(嶺南偏苦)·용인편중(用人偏重) 등 당시의 정치 상황에서 다섯 가지 폐단을 지적하여 개혁을 단행할 것을 진달하고 있다.

또, <의청영남행경대동소 擬請嶺南行京大同疏>는 당시 영남의 조세(租稅)와 부역이 다른 도에

1983년에 건국 포장이 추서되었고, 1990년에 건국 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신상교(申尙敎) 무신

이칭/별칭	극첨(極瞻), 수은(洙隱)		
분야	역사/전통 시대, 성씨·인물/전통 시대 인물		
유형	인물/문무 관인		
지역	경상북도 의성군		
시대	조선/조선 후기		
출생	1812년		
활동	1836년 별시 무과에 급제 1864년 오위장에 임명 1865년 충장위장에 임명 1866년 첨지중추부사에 임명		
몰년	1872년		
거주	경상북도 의성군 사곡면 매곡리		
묘소	경상북도 의성군 사곡면 공정리		
성격	무신	성별	남
본관	아주(鵝洲)	대표 관직	오위장

[정의]

조선 후기 의성 출신의 무신.

[가계]

본관은 아주(鵝洲). 자(字)는 극첨(極瞻), 호는 수은(洙隱). 신덕주(申德柱)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신극모(申極模)이고, 아버지는 신광병(申光炳)이며, 어머니는 성주 도씨(星州 都氏)로 도이윤(都以潤)의 딸이고, 부인은 의흥 박씨(義興 朴氏)로 박신조(朴信祖)의 딸이다.

[활동 사항]

신상교(申尙敎)[1812~1872]는 1836년(헌종 2) 별시(別試) 무과(武科)에 급제하였다. 1864년(고종 1) 오위장(五衛將)에 올랐으나 얼마 되지 않아 병을 이유로 사임하였다. 이어 1865년에는 충장위(忠壯衛) 위장(衛將)에 임명되었으나 이듬해 병환으로 사임하였다. 1866년(고종 3) 강화도에서 프랑스군이 병인양요를 일으켰을 때, 출정(出征)의 명령을 받았으나 도착하기 전에 난이 평정

되어 전투에 참전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그 공이 인정되어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에 올랐다.

[묘소]

묘소는 경상북도 사곡면 공정리 공수동(孔洙洞)에 위치해 있다.

신상도(申尙道) 문신

이칭/별칭	언유(彦由)
분야	역사/전통 시대 , 성씨·인물/전통 시대 인물
유형	인물/문무 관인
지역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도동리
시대	조선/조선 후기
출생	1570년
몰년	1615년
출생지	원흥리 -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도동리
묘소	신삼도 -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치선리 산47
성격	음관 성별 남
대표 경력	군자감 판관(軍資監 判官)

[정의]

조선 후기 의성 출신의 문신.

[가계]

본관은 아주(鵝洲). 자는 언유(彦由). 증조할아버지는 참봉(參奉)을 지낸 신수(申壽)이고, 할아버지는 증 호조 참의(贈 戶曹 參議) 신원록(申元祿)이고, 아버지는 사헌부 감찰(司憲府 監察)을 지낸 신심(申心)이고, 어머니는 사맹(司猛)을 지낸 장륜(蔣崙)의 딸 의인(宜人) 아산 장씨(牙山 蔣氏)이고, 부인은 이시경(李時慶)의 딸 성산 이씨(星山 李氏)이다.

[활동 사항]

신상도(申尙道)[1570~1625]는 1570년(선조 4) 경상도 의성현 남쪽 원흥리(元興里)[현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도동리]에서 태어났다. 가학(家學)을 계승하였으며, 어려서 특이한 재질이 있었고 재주가 남들보다 뛰어났다고 한다. 1615년 아버지 신심이 세상을 떠나자 날마다 성묘를 하는 효성을 보여주었다. 향촌에서 학문이 뛰어나 항상 학업에 충실했다고 하며, 음직으로 군자

감 판관(軍資監 判官)에 제수되었다.

[묘소]

묘는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치선리 산47에 있다.

신상하(申相夏) 유학자

이칭/별칭	계순(繼舜), 구암(矩庵)		
분야	역사/근현대, 성씨·인물/근현대 인물		
유형	인물/문인·학자		
지역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팔성리		
시대	근대/개항기		
출생	1839년 - 출생		
몰년	1906년 - 사망		
출생지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팔성리		
묘소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팔성리		
성격	유학자	성별	남
본관	아주(鵝洲)	대표 관직	향약장

[정의]

개항기 의성 출신의 유학자.

[가계] 본관은 아주(鵝洲).

자는 계순(繼舜). 호는 구암(矩庵). 생부는 신명호(申命祐), 모친은 김정진(金精進)의 딸 안동 김씨(安東 金氏), 계부는 신인협(申寅協), 계모는 이관발(李觀發)의 딸 영천 이씨(永川 李氏), 조부는 신면목(申冕穆), 증조부는 신만교(申萬教)이다.

[활동 사항]

신상하(申相夏)[1839~1906]는 1839년(헌종 5) 5월 7일 경상도 의성현 팔지리(八旨里)[현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팔성리]에서 출생하였다. 어려서 할아버지 신면구(申冕九)[생부 신명호의 부친]에게서 수학하였으며, 15세 때 고문(古文)과 경전(經傳)을 두루 익혔다고 한다. 1853년(철종 4) 할아버지 신면구는 세상을 떠나기 전, 장성하면 유치명(柳致明) 문하에서 공부하라는 유언을 신상하에게 남겼다.

23세가 되자 신상하는 유언대로 유치명에게 학문을 배웠으며, 그 문하에서 당대의 명유 이돈우(李敦禹), 김도화(金道和) 등과 '도의지교(道義之交)'를 맺었다. 1864년(고종 1)에는 봉두산(鳳頭山)[경상북도 의성군 안평면 일대] 남쪽에 강학을 위한 작은 정자를 지었는데, 이후 신상하는 관직에 뜻을 두지 않고 학문을 연마하는 데 주력하게 된다.

1891년(고종 28) 당시 경상도 관찰사였던 이헌영(李鑣永)은 『향약절목(鄉約節目)』을 편찬한 뒤, 도내 각 고을에 배포하며 향약 시행을 권장하였다. 이에 따라 의성 지역에서도 향약 시행을 위한 조직이 결성되었는데, 신상하가 향약장(鄉約長)을 맡았으며, 향교와 구호 서당(龜湖書堂)[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구미리에 위치]에서는 직접 강학(講學)을 하였다.

1893년(고종 30) 인근 군위현(軍威縣)으로 이주하였다가, 1895년(고종 32)에는 풍기군(豊基郡)으로 다시 거처를 옮겼다. 1906년(광무 10) 3월 22일 병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학문과 저술] 문집으로는 4권 2책의 『구암집(矩庵集)』이 전하는데, 1955년 아들 신성환(申成煥)이 간행한 것이다.

『구암집』에 수록되어 있는 「사문일수록(師門日受錄)」은 1861년(철종 12) 5월 7일부터, 18일까지 스승 유치명과 학문에 대해 문답한 것을 기록한 것이며, 「향약절목후(鄉約節目後)」는 1891년(고종 28) 의성에서 향약을 시행할 때 그 의의와 유래 등을 설명한 것이다. 또한 「용학강의(庸學講義)」는 구호 서당에서 강학할 때 여러 문생들과의 문답을 기록한 것으로, 이러한 글들은 성리학에 대한 신상하의 학문적 수준을 가늠케 해준다. 한편, 『구암집』에 수록된 아들 신성환의 유사(遺事)에 따르면, 신상하가 7대조 신우석(申禹錫)[1638~1695]부터 자신 대까지, 선조들의 행록(行錄)과 만뢰(挽詠)를 모아 『단구세적(丹邱世蹟)』 2책을 편찬했다고 한다.

[묘소]

『구암집』의 행장과 유사에는 팔지(八旨)[현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팔성리]에 묘소가 자리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구암유집(矩庵遺集)

정의

조선후기부터 대한제국기까지 생존한 학자 신상하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955년에 간행한 시문집.

내용

5권 2책. 목활자본. 1955년 아들 성환(成煥)이 편집, 간행하였다. 권두에 이준형(李濬衡)의 서문

과 권말에 홍치유(洪治裕)의 발문이 있다. 연세대학교 도서관에 있다.

권1~3에 시 41수, 상언(上言) 2편, 서(書) 8편, 잡저 4편, 지(識) 7편, 명 3편, 상량문 1편, 축문 4편, 권4·5에 제문 19편, 뇌사(誄辭) 2편, 행록 4편, 부록으로 만사 10수, 제문 4편, 유사 1편, 행장 1편, 묘갈명 1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시는 청아하고 품격이 높다. 「자지가(紫芝歌)」는 지치의 향기가 다른 풀보다 뛰어남을 칭찬하고, 사람도 지치처럼 남보다 탁월해야 한다는 내용을 옛 가사의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원조우음(元朝偶吟)」은 세월이 자꾸만 가는데 뜻한 바는 이루지 못하여 안타까운 심중을 읊은 것이다.

서 가운데 「상정재선생(上定齋先生)」은 스승인 유치명(柳致明)에게 학문하는 방법과 요령을 물은 것이며, 별지의 문목(問目)은 『중용』과 『대학』에 대해 의심나는 것을 질의한 것이다.

「용학강의(庸學講義)」는 구호서당(龜湖書堂)에서 강의한 내용을 적은 것으로, 성리학을 비롯하여 계구(戒懼)·근독(謹獨)·혈구(絜矩) 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사문일수록(師門日受錄)」은 1861년(철종 12) 5월 7일부터 18일까지 12일간 유치명과 학문에 대해 문답한 것을 구체적으로 적은 것이다.

「향약절목후(鄉約節目後)」는 1891년(고종 28)에 경상도관찰사인 이헌영(李憲榮)이 풍속을 순화시키기 위해 『향약절목』 1책을 각 시군에 나누어주고 향약을 시행하도록 권장했는데, 그것을 시행하면서 느낀 소감을 쓴 것으로, 향약의 발생 과정과 유래, 시행의 효과 등을 설명하였다.

조선 말기의 학자 신상하(申相夏)의 시문집. 5권 2책. 목활자본. 1955년 아들 성환(成煥)이 편집, 간행하였다. 권두에 이준형(李濬衡)의 서문과 권말에 홍치유(洪治裕)의 발문이 있다.

권1~3에 시 41수, 상언(上言) 2편, 서(書) 8편, 잡저 4편, 지(識) 7편, 명 3편, 상량문 1편, 축문 4편, 권4·5에 제문 19편, 뇌사(誄辭) 2편, 행록 4편, 부록으로 만사 10수, 제문 4편, 유사 1편, 행장 1편, 묘갈명 1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시는 청아하고 품격이 높다. <자지가 紫芝歌>는 지치의 향기가 다른 풀보다 뛰어남을 칭찬하고, 사람도 지치처럼 남보다 탁월해야 한다는 내용을 옛 가사의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원조우음 元朝偶吟>은 세월이 자꾸만 가는데 뜻한 바는 이루지 못하여 안타까운 심중을 읊은 것이다.

서 가운데 <상정재선생 上定齋先生>은 스승인 유치명(柳致明)에게 학문하는 방법과 요령을 물은 것이며, 별지의 문목(問目)은 <<중용>>과 <<대학>>에 대해 의심나는 것을 질의한 것이다. <용학강의 庸學講義>는 구호서당(龜湖書堂)에서 강의한 내용을 적은 것으로 성리학을 비롯하여 계구(戒懼)·근독(謹獨)·혈구(絜矩) 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사문일수록 師門日受錄>은 1861년(철종 12) 5월 7일부터 18일까지 12일간 유치명과 학문에 대해 문답한 것을 구체적으로 적은 것이다.

<향약절목후 鄉約節目後>는 1891년(고종 28)에 경상도관찰사인 이헌영(李憲榮)이 풍속을 순화시키기 위해 <<향약절목>> 1책을 각 시군에 나누어주고 향약을 시행하도록 권장했는데, 그것을 시행하면서 느낀 소감을 쓴 것으로 향약의 발생 과정과 유래, 시행의 효과 등을 설명하였다. 연세대학교 도서관에 있다.

신석호(申錫祐) 문신

조선 말기의 학자인 신석호(申錫祐)의 자는 덕문(德文), 호는 가헌(可軒)이다.

일찍이 과거에 여러 번 응시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낙향한 뒤 황조산(黃鳥山) 산기슭에 봉정(鳳亭)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은거하였다. 이때 영남지방을 유람하던 대원군(大院君)이 만나 보고는 의기가 통하자 시를 지어 준 일이 있다.

1866년(고종 3) 병인양요가 일어나자 공은 낙파상공(洛坡相公;柳厚祚)을 호동사제(壺洞私第)로 찾았으며 낙파공이 반겨주었으나 이곳이 초야의 선비가 오래 있을 곳이 못된다하여 돌아왔다.

낙파공의 추천으로 경상도 연보전도유사(捐補錢都有司)가 되었으며 1876년(고종 13) 일본과의 수호조약이 체결되자 최익현(崔益鉉), 홍재학(洪在鶴), 황재현(黃載顯)과 함께 상소하여 그 불가함을 논하였다 한다.

가헌집(可軒集)

정의

조선후기 학자 신석호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962년에 간행한 시문집.

편찬/발간

경위1962년에 현손인 용호(龍鎬) 등이 편집, 간행하였다. 권두에 이기윤(李基允)의 서문과 권말에 박증헌(朴曾憲), 그의 증손인 기능(基能), 현손인 용호 등의 발문이 있다.

서지사항

3권 2책. 석인본. 국립중앙도서관과 고려대학교 도서관 등에 있다.

내용

권1에 부 3편, 시 53수, 소 1편, 서(書) 32편, 권2에 잡저 30편, 권3에는 고유문 1편, 제문 3편, 상량문 2편, 묘지 2편, 행록 2편, 부록으로 만사 32편, 제문 26편, 교유록·유사·행장·묘표·묘지명·묘갈명 각 1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소의 「병자척왜소(丙子斥倭疏)」에서는 1876년(고종 13) 개화와 일본과의 수교를 주장하는 박영효(朴泳孝)의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잡저 가운데 「용학발문(庸學發問)」에서는 『중용』과 『대학』에서 난해한 부분을 의문형식으로 문목을 만들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통도내교원각유소문(通道內校院各儒所文)」은 병인양요 때 경상도 각 향교와 서원에 보낸 통문으로서, 유학전통의 규범과 질서를 수호하려는 확고한 신념에서 척사론을 주장하고 있다.

「삼정책(三政策)」은 1866년에 실시한 경시(慶試)의 책문으로, 채택은 되지 않았으나 전부(田賦)·군적(軍籍)·환곡(還穀)에 대한 당시의 폐단을 낱낱이 지적하면서 시정을 촉구한 것으로, 당시의 경제와 군사문제를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조선 말기의 학자 신석호(申錫祜)의 시문집. 3권 2책. 석인본. 1962년에 현손인 용호(龍鎬) 등이 편집, 간행하였다. 권두에 이기윤(李基允)의 서문과 권말에 박증헌(朴曾憲), 그의 증손인 기능(基能), 현손인 용호 등의 발문이 있다.

권1에 부 3편, 시 53수, 소 1편, 서(書) 32편, 권2에 잡저 30편, 권3에는 고유문 1편, 제문 3편, 상량문 2편, 묘지 2편, 행록 2편, 부록으로 만사 32편, 제문 26편, 교유록·유사·행장·묘표·묘지명·묘갈명 각 1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소인 <병자척왜소 丙子斥倭疏>에서는 1876년(고종 13) 개화와 일본과의 수교를 주장하는 박영효(朴泳孝)의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잡저 가운데 <용학발문 庸學發問>에서는 <<중용>>과 <<대학>>에서 난해한 부분을 의문형식으로 문목을 만들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또, <통도내교원각유소문 通道內校院各儒所文>은 병인양요 때 경상도 각 향교와 서원에 보낸 통문으로서, 유학전통의 규범과 질서를 수호하려는 확고한 신념에서 척사론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삼정책 三政策>은 1866년에 실시한 경시(慶試)의 책문으로 채택은 되지 않았으나, 전부(田賦)·군적(軍籍)·환곡(還穀)에 대한 당시의 폐단을 낱낱이 지적하면서 시정을 촉구한 것으로, 당시의 경제와 군사문제를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국립중앙도서관과 고려대학교 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신심(申伸) 문신 의병

이칭/별칭	선지(善之), 흥계(興溪)
분야	역사/전통 시대, 성씨·인물/전통 시대 인물
유형	인물/의병·독립운동가
지역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도동리
시대	조선/조선 후기
출생	1547년 출생
몰년	1625년 사망
출생지	원흥리 -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도동리
묘소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치선리 산47

[정의]

조선 중기의 효자.

[가계]

본관은 아주(鵝州)이며, 신심(申鐔)은 효자 신지익(申之益)의 아들이다.

[활동사항]

병자호란에 갑작스럽게 적병을 만나 자신의 몸으로 부모를 막고 슬피 울며 살려줄 것을 청하니 적병들도 차마 어찌하지 못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병에 단지(斷指)하여 구완하였다.

[상훈과 추모]

산외면(山外面) 송동리(松洞里) 삼효각(三孝閣)에 아버지 신지익, 사촌 신협(申鋏)과 함께 숙종 때 효로써 정려되었다.

신인식(申仁植) 독립운동

분야 역사/근현대, 성씨·인물/근현대 인물
유형 인물/의병·독립운동가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시대 근대/근대
성별 남
생년 1924년
몰년 1987년
출신지 충청북도 청원
상훈 건국훈장 애족장[1990년]

[정의]

한국광복군으로 활동한 독립운동가.

[활동사항]

1943년 10월 일제에 의해 강제로 징집 당하여 중국 남경지구(南京地區)의 일본군 부대에 배속되었다. 그러나 그는 중국 중경(重慶)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한국광복군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1944년 5월 한국광복군에 입대할 것을 결심하고 일본군을 탈출한 후 우선 중국군 유격대

에 가담하여 활동하였다.

이어 1945년 4월 중국 중경에 도착하여 토교대(土橋隊)에 입대하고 광복군 총사령부 경위대(警衛隊)에 배속되어 복무하던 중 광복을 맞이하여 귀국하였다.

[상훈과 추모]

정부는 그의 공훈을 기려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묘소]

충청북도 청원군 낭성면 문박리 산 22번지에 있다.

신열도(申悅道) 문신

분야	역사/전통 시대 , 성씨·인물/전통 시대 인물		
유형	인물/문무 관인	지역	경상북도 의성군
시대	조선/조선 후기		
출생	1589년연표보기 출생		
활동	1606년 진사시에 급제 1624년 증광 문과에 급제 1647년 사헌부 장령에 임명		
몰년	1659년연표보기 사망		
추모	1858년연표보기 의성 단구 서원에 배향		
출생지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묘소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사당	단구 서원 -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분토리		
성격	문신	성별	남
본관	아주(鵝洲)	관직	능주 목사

[정의]

조선 후기 의성 출신의 문신.

[가계]

본관은 아주(鵝洲). 자(字)는 진보(晉甫), 호는 나재(懶齋). 신준정(申俊禎)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신수(申壽)이며 아버지는 신흘(申屹)이고, 어머니는 순천 박씨(順天 朴氏)로 박윤(朴倫)의 딸이며, 부인은 문소 김씨(聞韶 金氏)로 김굉(金泓)의 딸이다.

[활동 사항]

신열도(申悅道)[1589~1659]는 장현광(張顯光)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1606년(선조 39) 진사가 되고, 1624년(인조 2) 증광(增廣) 문과(文科)에 을과(乙科)로 급제하여, 승문원(承文院)에서 관직을 시작하였다. 1625년에 박사(博士), 전적, 기사관을 지내고 1627년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강화도로 인조를 호종하였다. 그는 형들과 더불어 호란 당시 척화(斥和)를 강력하게 주장하며 화의론을 강력히 비난하였다.

1628년 형조 좌랑(刑曹 佐郎)이 되었으며, 동지사(冬至使)의 서장관(書狀官)으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그 뒤 예조(禮曹)·병조(兵曹)·호조(戶曹)의 좌랑(佐郎)을 두루 지내고, 1630년 지제교(知製敎), 1636년 성균관 직강(成均館 直講), 병조 정랑(兵曹 正郎), 사간원 정언(司諫院 正言)을 지냈다.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인조를 호종하여 남한산성에 들어갔다. 병자호란 때에도 화의론을 강력히 비난하며 동지들과 상소를 올려 끝까지 항쟁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의병을 모집하는 격문(檄文)을 초안하여 도내에 포고하고, 각 고을마다 의병을 모아 해서 부원수(海西 副元帥)의 진(陣)으로 보냈다.

이듬해 전란이 끝나자 고향으로 내려왔다가, 1638년(인조 16) 울진 현령(蔚珍 縣令)으로 나아가 민생에 대해 극언하였는데, 인조는 이를 모두 받아들였다. 1645년 공조·병조의 정랑(正郎)에 제수고, 1647년 장령(掌令)을 거쳐 1649년 예천 군수(醴泉 郡守)로 나아갔다가 1652년(효종 3) 장령을 지냈으며, 다시 능주 목사(綾州 牧使)를 지냈다.

1655년 사간(司諫), 성균관 사성(成均館 司成), 종부시 정(宗簿寺 正)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나아가지 않았으며, 이때부터 고향에서 두문불출하며 병환을 다스렸다.

[학문과 저술]

문집으로는 『나재집(懶齋集)』 9권 4책이 있으며, 『선사지(仙槎志)』와 『문소지(聞韶志)』 등도 편찬하였다. 『문소지』는 스승인 장현광의 권유로 편찬한 의성현의 읍지이다. [묘소] 묘는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에 있다. [상훈과 추모]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분토리에 위치한 단구 서원(丹邱 書院)에 배향되었다.

[상훈과 추모]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분토리에 위치한 단구 서원(丹邱 書院)에 배향되었다.

나재집(懶齋集)

편찬및간행

저자는 朝天錄, 仙槎誌, 聞韶誌, 拜門錄 등의 저술과 약간의 유문을 남겼다. 본집은 家藏草稿를 바탕으로 수집 편차하여 목판으로 간행하였으며, 序, 跋이 없어 편찬 경위와 간행 연도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다만 6세손 申致教가 家狀과 鶴沙 金應祖(1587~1667)가 지은 墓誌를 가지고 立齋 鄭宗魯(1738~1816)에게 행장을 부탁하였는데, 행장 말미에 정종로의 관직이 '持平'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지평에 제수된 1796년 이후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초간본》이 본은 현재 국립중앙도서관(古3648-文40-46),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811.98/신열도/나-판), 성균관대학교 존경각(D3B-2753) 등에 소장되어 있다.

본서의 저본은 1796년 이후에 간행된 초간본으로 국립중앙도서관장본이다. 본 영인저본 중 권 6의 제35~36판은 상태가 불량하여 동일본인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장본으로 대체하였으며 권 9의 제1판은 板次가 누락되어 있다.

行狀(鄭宗魯 撰), 墓誌(金應祖 撰), 本集內容 등에 의함

구성과내용

본집은 9권 4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권마다 目錄이 있다.

권1은 詩(123題)이다. 書狀官으로 赴京할 때 上使 宋克訥과 수창한 시 및 使行 중 각처에서 소회를 읊은 시가 가장 많으며, 張顯光, 冶隱 吉再, 伯·仲兄 등의 시에 차운한 시, 申之悌·洪瑋 등을 애도한 만시, 金榮祖·申楫 등에게 준 증시 등이 시체 구분 없이 연대순으로 실려 있다.

권2는 敎書(2), 賜祭文(2), 疏(4), 啓(9)이다. 강원 감사 朴遜, 황해 감사 李鼻에게 내리는 교서와 漢南君 李必榮, 형조 참판 李民奩을 위한 사제문이 있다. <戊寅應旨疏>에서는 結役의 편종과 軍額의 과다로 인한 蔚珍縣의 피해를 진달하여 도움을 청하면서 '多難興邦'을 역설하였고, <請勿遣使仍自劾啓>에서는 강화 사신을 보내지 말 것을 주장한 鄭蘊을 옹호하고 諫官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자신의 체직을 청하였다.

권3은 <朝天時間見事件啓>로, 서장관이 되어 1628년 7월 11일 辭朝하고 海路로 부경하여 1629년 윤4월 18일 平壤에 도착할 때까지의 여정을 자세히 기록하여 왕에게 보고한 것이다.

권4는 明의 都督 毛文龍, 登州 軍門, 禮部에 올린 문文(8)이다.

권5는 장현광, 沈之源, 金世濂, 金光繼, 金應祖 등에게 보낸 書(30)이다. 장현광에게는 父母, 妻, 長子의 喪禮에 대한 問目 등 6편이 있고, <寄諸兒>는 1636년 남한산성에서 척화를 주장하며 아들들에게 비장한 마음을 전한 것이다.

권6은 雜著(2), 序(3), 跋(7), 上樑文(4), 祝文(12)이다. 잡저의 拜門錄은 장현광의 문하에서 40여 년간 가르침을 받은 내용을 기록하였고, <懶齋說>은 齋名을 '懶'로 삼은 연유를 설명한 것이다.

黃辰, 申弘望, 金光岳을 위한 送序와 仙槎誌(1640년)와 聞韶誌(1656년)의 발, 장현광을 배향한 東洛書院 등의 상량문, 1621년 使行 중에 폭풍으로 사망한 柳澗, 朴彝叙 등을 위로하는 제문 등이 있다.

권7은 祭文(17), 墓表誌(6)이다. 정구, 장현광, 신지제, 李民成, 崔暎 등을 애도한 제문, 父母의 묘표, 중형 申達道와 중형 申志道の 묘지 등이 있다.

권8은 이민성, 伯祖 申元福, 신달도, 이민환의 行狀이 있다.

권9는 附錄으로 鄭宗魯가 지은 행장과 金應祖가 지은 묘지가 있다.

신우(申祐) 무신 효자

이칭/별칭	퇴재(退齋)		
분야	역사/전통 시대 , 성씨·인물/전통 시대 인물		
유형	인물/문무 관인		
지역	경상북도 의성군		
시대	고려/고려 후기		
추모	1509년 신우 속수 서원에 배향 1992년 신우 유허비각 중수		
거주	효자리 경상북도 의성군 구천면 청산리		
묘소	신우 경상북도 의성군 구천면 용사 1리 산39		
사당	속수 서원 경상북도 의성군 단밀면 속암리		
성격	무신	성별	남
본관	아주(鵝洲)	관직	호군(護軍)

[정의]

고려 후기 의성 출신의 무신이며 효자.

[가계]

본관은 아주(鵝洲). 호는 퇴재(退齋). 아버지는 신윤유(申允濡)로 아주 신씨(鵝洲 申氏) 의성 입향조이다. 부인은 약목 유씨(若木 柳氏)이다.

[활동 사항]

신우(申祐)는 생몰년 미상이며, 고려 충혜왕 때 무과에 급제하여 벼슬은 봉상(奉常)·사헌부 장령

[정의]

조선 전기 의성 출신의 효자.

[가계]

본관은 아주(鵝洲). 자는 계수(季綏)·순보(順甫). 호는 회당(悔堂). 퇴재(退齋) 신우(申祐)의 6세손이다. 참봉(參奉)을 지낸 신수(申壽)의 다섯 아들 중 셋째로 태어났다. 형은 신석록(申錫祿)과 신택록(申宅祿)이며, 동생은 신도수(申道洙)와 신헌록(申憲祿)이다.

[활동 사항]

신원록(申元祿)[1516~1576]은 효성과 학문이 모두 뛰어났다. 11세가 되던 해에 아버지가 병이 들어 인근에서 약을 구할 수가 없어 집에서 수백 리가 떨어진 팔공산까지 직접 가서 약을 구해 왔다. 그러한 정성으로 형인 신원복(申元福)과 함께 8년 동안 아버지를 간호하였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홀로 된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 「연친곡(宴親曲)」 8규(閨)를 지어 불렀다. 어머니의 상을 당해서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 세 번 성묘를 하였다.

남명(南冥) 조식(曹植)에게 먼저 나아가 학문을 닦다가 신재(愼齋) 주세붕(周世鵬)이 백운동 서원(白雲洞書院)을 건립하자 그곳으로 나아가 배움을 청하였다. 그리고 스승 주세붕이 세상을 떠나자 심상(心喪) 삼년을 지냈다.

퇴계(退溪) 이황(李滉)이 풍기 군수로 재임할 때에는 백운동 서원에 머물며 구봉령(具鳳齡), 조목(趙穆), 김팔원(金八元) 등과 강론하며 교류하였다. 또한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를 증유하며 학문에 매진하기도 하였다.

1556년(명종 11)에는 서원을 세워 의성(義城)이 관향인 모재(慕齋) 김안국(金安國)을 배향하는데 앞장섰으며, 이 일로 “장천(長川)”이라는 사액을 받게 되었다. 그 밖에 향리를 위해 스승 퇴계에게서 향약을 필사해 와 실행하고, 난민을 구제하기 위해 진휼장(賑恤場)을 운영하고, 고장의 발전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대소과(大小科) 출신 인사들의 모임인 연계소(蓮桂所)를 설립하고, 문중 인사를 모아 사당에 참배하고 학문을 권장하는 모임인 월삭회(月朔會)를 조직하는 등 많은 일을 하였다.

[상훈과 추모]

세상을 떠난 지 39년 뒤인 1615년(광해군 7) 그의 효행이 조정에 알려져 그가 살던 마을에 효자문이 세워지고 통정대부(通政大夫) 호조 참의(戶曹 參議)에 추서되었다. 그리고 장대 서원(藏

待書院)에 배향되었다.

회당문집(悔堂文集)

정의

조선전기 학자 신원록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769년에 간행한 시문집.

편찬/발간

경위신원록의 6대손 신정모(申正模)가 1740년(영조 16)에 편집했으나 인간(印刊)은 1769년경에 이루어진 듯하다. 권두에 이광정(李光庭)이 1739년에 쓴 서문이 있고, 신정모가 편찬한 연보가 있다.

서지사항

4권 2책. 목판본. 규장각 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있다.내용권1에 부(賦) 4편, 시 45수, 권2에 서(書) 2편, 잡저 6편, 제문 3편, 권3·4에 부록으로 효우록(孝友錄)·행장·습유·묘지·묘표·속삼강행실·문소지(聞韶識)·제묘문·장대서원봉안문(藏待書院奉安文)·상향축문·풍영루상량문(風詠樓上樑文)·이산구원묘우상량문(尼山舊院廟宇上樑文)·사우록(師友錄)·사우록발 등이 수록되어 있다.

부 가운데 「삼근부(三近賦)」는 지(知)·인(仁)·용(勇)의 3덕목을 노래한 것이고, 나머지 3수도 철리(哲理)를 읊고 있다. 시는 동지들과 화답한 것이 대부분이고, 평담한 풍격을 지니고 있다. 서(書)는 주세붕(周世鵬)과 서원 학생에게 보낸 것으로, 장천서원(長川書院)의 운영에 대한 내용이다.

잡저에는 「유봉자원방래불역낙호론(有朋自遠方來不亦樂乎論)」·「업유재완의(業儒齋完議)」·「진제장지(賑濟場志)」·「서향약후(書鄉約後)」·「자모영정지(慈母影幀識)」·「장천서원영건전말(長川書院營建顛末)」 등이 있다. 「업유재완의」는 향교의 학자금에 대한 규정이고, 「진제장지」는 1553년(명종 8)과 1554년의 기근 구휼에 대한 것이다. 「장천서원영건전말」에는 김안국(金安國)을 제향한 장천서원 건립의 전말이 실려 있다. 잡저에 있는 서원에 대한 기록은 초기 서원의 운영과 재정 연구의 자료가 된다.

제문은 김사걸(金士傑)·조종돈(趙宗敦) 등에 대한 것이다. 「효우록」은 저자가 아버지 신수(申壽)를 간병하고, 모친상을 당했을 때 행한 효행으로 효자문이 세워진 경과를 적은 것으로, 형 신원복(申元福)이 기록하였다. 「속삼강행실」과 「문소지」도 효행에 대한 것으로, 「연친곡(宴親曲)」

8규(閨)를 지었다는 기록이 보인다.

손자 신열도(申悅道)가 편찬한 「사우록」에는 저자의 사우 74인의 행적과 그들이 저자에게 준 시문이 들어 있다. 이황(李滉)·조식(曹植)·박운(朴雲)·주세붕·김인후(金麟厚)·황준량(黃俊良) 등 당대 거유의 이름이 보인다. 권말에 「회당선생분산도(悔堂先生墳山圖)」·「신재주선생유묵(愼齋周先生遺墨)」 및 이상정(李象靖)의 「유묵발」이 있다.

조선 중기의 학자 신원록(申元祿)의 시문집. 4 권 2 책. 목판본. 6 대손 정모(正模)가 1740 년(영조 16)에 편집했으나 인간(印刊)은 1769 년경에 이루어진 듯하다. 권두에 이광정(李光庭)이 1739 년에 쓴 서문이 있고, 정모가 편한 연보가 있다.

권 1 은 부(賦) 4 편, 시 45 수, 권 2 는 서(書) 2 편, 잡저 6 편, 제문 3 편, 권 3·4 는 부록으로 효우록(孝友錄)·행장·습유·묘지·묘표·속삼강행실·문소지(聞韶識)·제묘문·장대서원봉안문(藏待書院奉安文)·상향축문·풍영루상량문(風詠樓上樑文)·이산구원묘우상량문(尼山舊院廟宇上樑文)·사우록(師友錄)·사우록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 중 <삼근부 三近賦>는 지(知)·인(仁)·용(勇)의 3 덕목을 노래한 것이고, 나머지 3 수도 철리(哲理)를 읊고 있다. 시는 동지들과 화답한 것이 대부분이고, 평담한 풍격을 지니고 있다. 서(書)는 주세붕(周世鵬)과 서원 학생에게 보낸 것으로, 장천서원(長川書院)의 운영에 대한 내용이다.

잡저에는 <유봉자원방래불역낙호론 有朋自遠方來不亦樂乎論>·<업유재완의 業儒齋完議>·<진제장지 賑濟場志>·<서향약후 書鄉約後>·<자모영정지 慈母影幀識>·<장천서원영건전말 長川書院營建顛末> 등이 실려 있다.

<업유재완의>는 향교의 학자금에 대한 규정이고, <진제장지>는 1553 년(명종 8)과 1554 년의 기근 구휼에 대한 것이다. <장천서원영건전말>에는 김안국(金安國)을 제향한 장천서원 건립의 전말이 실려 있다. 잡저에 있는 서원에 대한 기록은 초기 서원의 운영과 재정 연구의 자료가 된다. 제문은 김사걸(金士傑)·조종돈(趙宗敦) 등에 대한 것이다.

<효우록>은 저자가 아버지 수(壽)를 간병하고, 모친상을 당했을 때 행한 효행으로 효자문이 세워진 경과를 적은 것으로, 형 원복(元福)이 기록하였다. <속삼강행실>과 <문소지>도 효행에 대한 것으로, <연친곡 宴親曲> 8 규(閨)를 지었다는 기록이 보인다.

손자 열도(悅道)가 편한 <사우록>에는 저자의 사우 74 인의 행적과 그들이 저자에게 준 시문이 들어 있다. 이황(李滉)·조식(曹植)·박운(朴雲)·주세붕·김인후(金麟厚)·황준량(黃俊良) 등 당대 거유의 이름이 보인다.

권말에 <회당선생분산도 梅堂先生墳山圖>·<신재주선생유묵 慎齋周先生遺墨> 및 이상정(李象靖)의 <유묵발>이 있다. 규장각도서·국립중앙도서관에 있다.

신원복(申元福) 효자 문인 학자

[정의]

조선 전기 의성 출신의 학자이자 효자.

[가계]

본관은 아주(鵝洲). 자는 중수(仲綏). 호는 정은(靜隱). 아버지는 참봉을 역임한 신수(申壽), 어머니는 주부(主簿)를 역임한 박자검(朴自儉)의 딸 의흥 박씨(義興 朴氏), 할아버지는 훈도(訓導)를 역임한 신준정(申俊禎), 증조할아버지는 의성 입향조로 알려진 생원(生員) 신석명(申錫命), 부인은 생원 이송년(李崇年)의 딸 흥양 이씨(興陽 李氏)로 알려져 있다. 동생인 신원록(申元祿)은 효행으로 이름이 높아 『동국신속삼강행실도(東國新續三綱行實圖)』에 그 행적이 수록되었다.

[활동 사항]

신원복(申元福)[1509~1584]은 1509년(중종 4) 경상도 의성현 남쪽 원흥리(元興里)[현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도동리]에서 출생하였다. 동생 신원록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효우가 있어서, 이와 관련된 여러 일화가 전해진다.

아버지 신수가 오랫동안 병환이 있었기에, 신원복은 동생과 함께 정성껏 시탕(侍湯)을 하였다. 18세가 되던 어느 날 의원이 말하기를 팔공산(八公山)에 가면 약초가 있다고 하였다. 11세였던 동생 신원록이 혼자 약초를 캐러 가겠다고 하자, 신원복은 이를 민망히 여기며 자기가 혼자 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신원록이 말하기를 “부모를 위해 약초를 캐러 가는 것이니 하늘이 반드시 도울 것이다”하고 말하며 떠나니, 과연 무사히 돌아왔다. 이후 8년 동안 동생과 더불어 성실히 주야로 간호하였지만, 1533년(중종 28) 부친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부친의 묘를 팔지산(八智山)[현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팔성리] 아래에 마련하려 했으나, 주민들이 이를 금지하였다. 이에 신원복은 묘자리를 얻게 해달라고 지성으로 울면서 비니, 주민들도 감복하여 이를 허락하였다. 그리하여 신원복은 가족을 이끌고 팔지로 이주하였으며, 동생과 함께 3년간 여묘살이를 했다. 여묘살이가 끝난 후에는 묘소 아래에 재실을 세웠다. 모친에 대한 효성도 지극하여 직접 대변까지 맛보며 정성을 다하였으나, 결국 1575년(선조 8) 세상을 떠났다. 부친 묘소에 합장하였는데, 장례 때 신원록과 더불어 역부들이 해도 되는 온갖 집역(執役) 스스로 하였으며, 이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일 세 번씩 묘소에 가서 곡을 했다고 한다.

한편, 1543년(중종 38)에는 인근 고을로 부임한 풍기 군수(豊基 郡守) 주세봉(周世鵬) [1495

~1554]이,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 서원(白雲洞書院)을 지으려고 하자, 신원복은 동생 신원록을 보내어 그를 스승으로 받들게 하였다. 풍기에서 돌아온 신원록은 의성에도 서원이 필요함을 건의하였고, 형제가 의논한 끝에 김안국(金安國) 배향의 서원을 1556년(명종 11) 장천(長川)[현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을 지나 흐르는 남대천 상류 지역] 위에 건립하였다.

1576년(선조 9)에는 장천 서원(長川書院)으로 사액을 받으니, 훗날 옮겨 지은 빙계 서원(氷溪書院)[경상북도 의성군 춘산면 빙계리에 위치]의 전신이다. 동생 신원록이 먼저 세상을 떠나자 동생의 효성을 기리는 『효우록(孝友錄)』을 작성하였다.

1580년(선조 13) 천거를 받아 헌릉 참봉(獻陵 參奉)에 제수되나 부임하지 않았다. 1584년(선조 17) 세상을 떠났다. [학문과 저술] 저술로는 동생 신원록의 효성을 기록한 『효우록』이 전한다. 1책 8장의 등초본(謄草本)이 서울 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가계부터 시작해서 신원록의 임종까지 그 일대기를 연대기식으로 서술한 것이다. 이외 유집(遺集)이 있다고 『교남지(嶠南誌)』에 기록되어 있다.

[묘소]

의성현 팔지산[현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팔성리]의 동생 묘소 아래에 장례를 지냈다.

[상훈과 추모]

1807년 건립된 매강 서원(梅岡書院)[경상북도 의성군 사곡면 매곡리에 위치]에 배향되었다. 매강 서원에는 손자 신희도(申弘道), 증손자 신류(申瑠)도 함께 배향되어 있다. 배향 당시 봉안문(奉安文)은 류심춘(柳尋春)이 작성하였으며, 1920년 서원 중건 후 복향 될 때에는 이돈유(李敦裕)가 봉안문을 작성하였다. 한편 신원복의 묘갈명(墓碣銘)은 류규(柳 圭 + 奎)가 1799년(정조 23)에 지었다.

효우록(孝友錄)

신원록(申元錄)(1516-1576)이라고 하는 효자의 일대기(一代記)를 적은 책이다. 그의 친형 원복(元福)이 쓴 책으로 규장각본은 원서(原書)의 등초본(謄草本)이거나 그 전사본(轉寫本)으로 보인다. 그것은 본문 중에 간간히 나타나는 오기(誤記)로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다. 책이름을 <孝友錄>이라 한만큼 본문(本文)전체가 신원록(申元錄) 개인의 효우(孝友)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지만 서술 체제는 가계·본관(家系·本貫) 내지 인적(人的) 사항에서 임종에 이르기까지의 행적을 연대기(年代記)식으로 기술한 전형적인 연보(年譜)의 형식이다.

연기(年紀)는 본문의 말미에, 만력(萬曆) 병자(丙子) 5월에 형 원복읍서(兄元福泣書)라고 한 것으로 보아 1577년으로 추정된다.

첫부분에는 신씨의 세계가 실려 있고 이어서 신원록의 행장이 기록되어 있다. 말미에 신원록의

약력·사적·저작이 간략하게 적혀 있다.

후미에는 다시 필자(筆者)인 신원복(申元福)의 찬문(贊文)에 해당하는 글이 있고, 여기에 다시 약력(略歷)과 사적(事蹟) 및 저작(著作)을 첨기(添記)하여 개인의 행장(行狀)으로서는 거의 완벽을 기하고 있다.

내용은 그의 인적사항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자(字)는 계수(季綏), 본관은 아주(鵝州)며, 고려 전라도 안염사 우(高麗 全羅道 按廉使 祐)의 6세손이다. 그의 가문(家門)은 워낙 효행(孝行)으로 이름이 있었던 듯, 우(祐) 역시 그의 친상(親喪)에 효행이 있었다 한다. 이러한 사실이 <<고려사(高麗史)>>와 <<삼강행실(三綱行實)>>, 그리고 여지지(輿地誌) 등에 기록이 되었다고 본서(本書)의 필자는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본론이 되는 신원록(申元祿)의 효행 및 독행(篤行)이 溫雅한 필치로 전개되어 있다.

신원록은 조식(曹植)과 주세붕(周世鵬)의 문하에서 학문을 닦았으며, 평생 <<심경(心經)>>·<<근사록(近思錄)>> 등의 성리서(性理書)를 읽으며 그 뜻을 실천하려 노력하였고, 서원·향약 운동에 활약하였음을 기록하였다.

그의 효행(孝行)은 삼강행실(三綱行實)에 오르게 됐고, 또 조령(朝令)으로 정여(旌閭)를 하기에 이르렀으며, 뒤에는 또 장대서원(藏待書院)에 제향(祭享), 호조참의(戶曹參議)를 추증하였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유작(遺作)으로 업유제완의·서향약후·효우록(業儒齊完議·書鄉約後·孝友錄) 등 3건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책은 효와 우애에 돈독한 선비의 일대기로서, 자료적 가치는 그다지 높다고 할 수 없으나, 사적을 통하여 조선시대 선비들의 윤리관과 교우관계·풍속 등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다. 규장각 도서 등에 있다.

신윤유(申允濡) 문신

이칭/별칭	신원유(申元濡)		
분야	역사/전통 시대, 성씨·인물/전통 시대 인물		
유형	인물/문무 관인		
지역	경상북도 의성군	시대	고려/고려 후기
거주	경상북도 의성군 단밀면		
사당	경상북도 의성군 구천면 용사리		
성격	문신	성별	남
본관	아주(鵝洲)	관직	판도판서(判圖判書)

[정의]

고려 후기 의성 출신의 문신.

[가계]

본관은 아주(鵝洲). 첫 이름은 신원유(申元濡)이다. 부인은 성주 이씨(星州 李氏)이다. 아주 신씨(鵝洲 申氏) 의성 입향조이다.

[활동 사항]

신윤유(申允濡)는 생몰년 미상이며, 고려 충렬왕 때 판도판서(判圖判書)를 지냈는데, 고려가 멸망하자 현재의 의성군 단밀면으로 내려와 은거하였다. 그의 고려에 대한 충성과 절의에 대해 당대 사람들은 당개(唐介)에 버금간다 하였다. 초하루 보름마다 산마루에 올라 개경을 바라보고 깊은 한을 풀었기에 산 이름도 망경산(望京山)이라 하였는데 나중에 만경산(萬京山)이라 변경되었다.

[묘소]

묘는 의성군 구천면 청산리에 있었는데 실전하였고, 구천면 용사리에 소단을 조성하여 해마다 봉향하고 있다.

신응태(申應泰) 유학자

시대	조선
출생	1643년(인조 21)
사망	1728년(영조 4)
유형	인물
직업	학자
대표작	용애문집
성별	남
분야	종교•철학/유교
본관	아주(鵝州)

[정의]

조선후기 『용애문집』을 저술한 학자.

[개설]

본관은 아주(鵝洲). 초명은 응개(應漑). 자는 길래(吉來), 호는 용애(龍崖). 충청북도 청주 출생. 신심(申鑣)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광주반씨(光州潘氏)로 반봉익(潘鳳翼)의 딸이다. 송시열(宋時烈)

의 문인이다.

[생애 및 활동사항]

5세 때에 아버지를 여의었는데 홀로된 어머니를 극진히 봉양하였다. 일찍이 향시에 여러 번 합격하였으나 과거에는 끝내 오르지 못하고, 그 뒤 뜻을 달리하여 학문연구에 전심, 역학과 성리학에 깊이 들어갔으며 천문·역수에도 밝았다.

1689년(숙종 15) 송시열이 사사되자 이에 항변하는 내용의 상소문을 써서 대궐 앞에 나아가 시위하는 등, 스승의 신원을 위하여 힘썼으며, 명의 신종을 제사지내자는 유림의 운동에 앞장섰다. 만년에는 후진 양성에 힘써 문하에 많은 학자가 배출되었다. 저서로 『용애문집 (龍崖文集)』 4권 1책이 있다.

용애집(龍崖集)

용애문집(龍崖文集) 저자의 유고는 8권이 있었으나 산일되어 온전히 전해지지 못했다. 9세손 신태선이 성구용과 함께 남은 원고를 편찬하여 1968년 간행하였다.

4권 1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권수에 김성환과 성구용의 서문이 있다. 권1은 시와 소, 서, 권2는 잡저, 권3은 기, 제발, 찬, 제문 등, 권4는 부록이다. 권미에는 신태선의 발문이 실려 있다.

신적도(申適道) 문신 의병

이칭/별칭	호계(虎溪)
분야	역사/전통 시대 , 성씨·인물/전통 시대 인물
유형	인물/의병·독립운동가
지역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팔성리
시대	조선/조선 후기
출생	1574년연표보기 신적도 출생
활동	1606년 신적도 진사시에 급제 1627년 신적도 상운도 찰방에 임명
몰년	1663년연표보기 신적도 사망
추모	1867년 신적도 호조 참의에 추증
활동지	상운도 강원도 양양군 건원릉 경기도 구리시
사당	단구 서원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분토리
성격	관료의병 성별 남

대표 경력 증 호조 참의(戶曹 參議)

[정의]

조선 후기 의성 출신의 관료이자 의병.

[가계]

본관은 아주(鵝洲). 호는 호계(虎溪). 아주 신씨 의성읍 파조(派祖) 신광부(申光富)의 후손이다. 할아버지는 신원록(申元祿)이고, 아버지는 신흘(申佺)이고, 동생은 신달도, 신열도이다.

[활동 사항]

신적도(申適道)[1574~1663]는 청년기에 한강 정구와 여헌 장현광에게 배웠다. 학문과 효행이 뛰어 났다. 1606년(선조 39) 진사시에 급제하였다. 1627년(인조 5) 정묘호란이 발발하자 “임금이 피난길에 나서고 국사가 어지러운데 신하된 사람으로 산하에 묻혀 구차하게 생활을 도모할 때가 아니다.” 하며 원근의 동지들과 의병을 모집하고 군량을 준비하여 밤낮 달려가니 이미 화의를 맺어 적이 물러간 뒤라 어전에 소장을 올려 장한 일이란 비답(批答)을 받고 나라로부터 상운도 찰방(祥雲道 察訪) 벼슬이 내려졌다.

병자호란 때에도 의성 의병장으로 활약하였다. 오랑캐와 화친할 수 없으며, 이를 배척한다는 뜻에서 “척화하는 것이 당연한 일. 어찌 강화파들은 반대한단 말인가? 오랑캐가 겁나 두려워함이라. 망국꼴 보려는 왕손매의 심정이구나.” 라는 척화시(斥和詩) 읊었고, 군사와 양곡을 나라에 바쳤다. 나라에서 건원릉 참봉(健元陵 參奉)의 벼슬이 내려졌다.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다는 뜻을 표하기 위해 서울에 가서 사은(謝恩)의 예를 마치고 돌아와서는 경상북도 의성군 옥산면 금학리의 학소대에 채미헌(採薇軒)을 짓고, 날마다 『춘추(春秋)』를 읽으며, 비분강개(悲憤慷慨)하였다. 당시 사람들이 소주(韶州) 산곡에 대명(大明)의 일월이 비친다고 했다.

[저술 및 작품]

생전에 쓴 글을 모은 『호계문집(虎溪文集)』 6권 3책이 있다.

[상훈과 추모]

1867년(고종 4) 호조 참의 증직이 내려졌으며, 단구 서원(丹邱 書院)에 배향되었다.

호계문집(虎溪文集)

조선 중기의 학자 호계 신적도(虎溪 申適道)(1574~1663)의 시문집이다.

표지서명은 '호계집(虎溪集)'이다. 신적도의 자는 사립(士立), 호는 호계(虎溪), 아버지는 흘(佺)이

다. 정구(鄭逵)와 장현광(張顯光)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1605년(선조 38) 향시(鄉試)에 합격하였으며, 벼슬은 찰방에 그쳤다. 병자호란과 정묘호란 당시 의병을 일으켰다.

《호계선생유집(虎溪先生遺集)》은 모두 6권 3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권1에는 시·소·서(詩·疏·書) 등이, 권2에는 잡저(雜著) 12편, 잠(箴) 2편, 명(銘) 2편, 제문(祭文) 6편 등이, 권3·4는 창의록(倡義錄)으로 서·지략·통유일향사우문·통유도내문·창의목록(序·誌略·通諭一鄉士友文·通諭道內文·倡義目錄) 등이 수록되어 있고, 권5·6은 부록(附錄)으로 유사·행장·묘표·묘갈명·읍지·봉안문·상향축문·고묘문·사림통문·사우유찰·제문·만사(遺事·行狀·墓表·墓碣銘·邑誌·奉安文·常香祝文·告墓文·士林通文·師友遺札·祭文·輓詞) 등이 수록되어 있다.

권말에 수록되어 있는 후손 돈식(敦植)의 발문에 따르면, 《호계선생유집(虎溪先生遺集)》은 전대부터 간행을 위해 노력해오다가 돈식(敦植) 대(代)에 이르러, 유문을 수집·정리하고 유필영(柳必永) 등에게 서문과 발문을 받아 1919년(도유협흡(屠維協洽))에 간행했다고 적고 있다.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호계선생유집(虎溪先生遺集)》 ① <古 819.5-Si61h-v.1-3>본과 ② <古 3428 -811>본은 모두 1919년에 간행된 판본으로, ② <古 3428-811>본은 제3책 권5·6이 빠져 있는 영본(零本)이다.

서발(序跋) 등의 자료에 따르면 아들 신채(申採)가 유집(遺集) 7책을 편집하여 후일에 간행하려고 宗家에 보관하였는데, 1874년에 화재가 일어나 모두 불타버렸다고 한다. 이에 후손들이 신적도의 유문(遺文)을 널리 수집하여 문집을 편집하는 한편 행장·묘도문·서발(墓道文·序跋) 등을 받아 간행하였다.

권수에 유필영(柳必永)의 서문, 권말에 신상헌·곽도·이중구·신상하·신돈식(申相憲·郭鎬·李中久·申相夏·申敦植)의 발문이 있으며 각 권수에 목록이 실려 있다.

卷1에 歌와 操 각 1편·시 42題 50首·疎 3편·書 16편, 卷2에 잡저 12편·箴銘 4편·祭文 6편, 卷3과 권4에 창의록(倡義錄)이 실려 있다. 卷5와 卷6은 부록으로 卷5에 유사(遺事)와 행상·묘표(行狀·墓表) 등 17편, 卷6에 사우유찰(師友遺札) 10편·제문 3편·만사 22수·증은하장(贈恩賀章) 39수·후서와 발문 등 5편이 수록되어 있다.

시는 평소 친족 및 師友 등과 수창한 시편 내지 병자호란을 즈음하여 지은 시편이 많고, 유성룡·정구(柳成龍·鄭逵) 등을 애도하며 지은 만시도 14수가 실려 있다.

소(疏)는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때 斥和를 주장한 상소와 김엽·김옥·김찬(金燁·金煜·金燦) 삼열사(三烈士)의 褒獎을 청한 상언이 있으며, 편지는 정구·장현광·정경세·이준·이경석·정운(鄭逵·張顯光·鄭經世·李俊·李景奭·鄭蘊) 등의 사우(師友) 및 자식들에게 보낸 것이다.

잡저에는 성·심·정·의·지·인의예지·태극·음양(性·心·情·意·志·仁義禮智·太極·陰陽) 등에 대하여 논변한 글, 집안사람들을 훈계하기 위하여 지은 글, 채미헌(採薇軒)을 건립하고 지은 기문과

상량문 등이 있으며, 제문은 신우·정구·장현광·신달도(申祐·鄭逑·張顯光·申達道) 등 사우(師友) 내지 집안사람들을 치제할 때 지은 것이다.

창의록(倡義錄)은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때 창의(倡義) 관련 기록을 모은 것으로 卷3에는 정묘호란 때 신적도가 사민(士民)과 의소(義所)에 보낸 글 및 호소사(號召使) 장현광(張顯光)과 정경세(鄭經世)에게 올린 글, 임금의 교서(敎書)와 유서(諭書), 호소사(號召使)와 관향사(管餉使)의 관문(關文) 등이 실려 있고, 卷4에는 병자호란 때 신적도가 의성현의 사민에게 보낸 글, 1636년 12월 20일부터 1637년 2월 9일까지 의병에 참여했을 때의 주요 일정과 주변의 동정을 적은 倡義日錄이 있고, 말미에 신점·강난형·장석영(申沾·姜蘭馨·張錫英)이 창의록(倡義錄)에 붙인 발문 등이 실려 있다.

卷5에는 신적도의 학행과 충절 등을 적은 유사·행상·묘표·묘갈명(遺事·行狀·墓表·墓碣銘) 및 단구서원(丹邱書院) 배향 관련 봉안문(奉安文)과 축문(祝文), 1867년 이조참의(吏曹參議) 추증과 관련된 상계·초계·교지(狀啓·草啓·教旨) 및 고유문·상언·통문(告由文·上言·通文) 등이 실려 있다.

卷6에는 장현광·정운(張顯光·鄭蘊) 등이 신적도에게 보낸 10편의 편지를 모은 사우유찰(師友遺札), 정유숙(鄭惟熟) 등이 지은 3편의 제문, 김응조(金應祖) 등이 지은 22수의 만사, 강난형(姜蘭馨) 등이 1867년 신적도의 이조참의 추증을 기념하여 지은 39수의 축시(祝詩)가 실려 있다.

신정모(申正模) 문신

이칭/별칭	경해(景楷) , 이치재(二恥齋)		
분야	역사/전통 시대 , 성씨·인물/전통 시대 인물		
유형	인물/문무 관인		
지역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팔성리		
시대	조선/조선 후기		
출생	1691년 출생		
활동	1719년 신정모 진사시에 급제		
	1719년 신정모 증광 문과에 급제		
	1728년 신정모 경상도 군위로 유배		
몰년	1742년 사망		
추모	1864년 신정모 복관		
출생지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상리리		
거주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팔성리		
유허비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팔성리		
성격	문신	성별	남
본관	아주(鵝洲)	관직	거창 현감

[정의]

조선 후기 의성 출신의 문신.

[가계]

본관은 아주(鵝洲). 자는 경해(景楷), 호는 이치재(二恥齋). 신채(申埰)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신대석(申大錫)이고, 아버지는 신덕일(申德溢)이며, 어머니는 이성구(李星耆)의 딸 예안 이씨(禮安李氏)이고, 부인은 안이순(安履順)의 딸 순흥 안씨(順興安氏)이다. 숙부인 신덕순(申德洵)에게 출계하였다.

[활동 사항]

신정모(申正模)[1691~1742]는 어려서는 중부(仲父)인 신덕호(申德浩)에게 학문을 배웠으며, 장성해서는 이만부(李萬敷)에게 수학하였다. 1719년(숙종 45) 증광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1720년에 부정자, 1725년(영조 1)에 지평(持平)·정언(正言)·사옹원 주부(司饗院主簿) 등에 임명되고, 1727년 병조 좌랑·강원 도사·병조 정랑 등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부임하지 않다가, 거창 부사에 임명되자 부임하였다.

1728년 이인좌(李麟佐)의 난 때, 이를 막지 못하여 군위에 유배되었다가 이듬해 석방되었다. 그 뒤 암행어사 이흠(李滄)이 전과를 재조사, 보고하는 과정에서 그 죄상을 과장하여, 1735년 다시 흥양(興陽)에 유배되었다. 이듬해 충청도 충주로 이배되었다가 적소에서 죽었다. 1864년(고종 1) 복관되었다.

[학문과 저술]

신정모는 귀양지에서 항상 나라와 부모에게 충효(忠孝)를 다하지 못한 점을 부끄러워하며, 그 호를 스스로 이치재(二恥齋)라 하였다. 문집으로는 6권 3책의 『이치재집(二恥齋集)』이 전하는데, 이 문집은 1899년(광무 3) 후손 신상헌(申相憲)과 신돈식(申敦植)이 편집·간행한 것이다. 저서로는 10권 3책의 『소행록(素行錄)』이 전해진다. [묘소] 묘소는 오토산(五土山)[현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오로리]에 위치해 있다.

[상훈과 추모]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팔성리에 그의 유업을 기린 유허비(遺墟碑)가 세워졌다.

이치재집(二恥齋集)

조선 후기의 문신 이치재 신정모(二恥齋 申正模)(1691~1742)의 시문집이다. 신정모의 자는 경해(景楷), 호는 이치재(二恥齋), 본관은 아주(鵝洲), 아버지는 덕일(德溢)이며, 어머니는 선성 이씨(宣城李氏)로 성구(星耆)의 딸이다.

1719년(숙종 45) 증광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1720년에 부정자, 1725년(영조 1)에 지평·정언·사옹원주부 등에 임명되고, 1727년(영조 3) 병조좌랑·강원도사·병조정랑 등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부임하지 않다가, 거창부사가 되어 부임하였다.

1728년(영조 4) 이인좌(李麟佐)의 난 때, 이를 막지 못하여 군위에 정배되었다가 이듬해 석방되었다. 그 뒤 암행어사가 전과를 재조사, 보고하는 과정에서 그 죄상을 과장하여, 1735년(영조 11) 다시 흥양(興陽)에 정배되었다가 7년 뒤 적소에서 죽었다.

1864년(고종 1) 복관되었다. 《이치재선생문집(二恥齋先生文集)》은 모두 6권 3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권1~3에는 부(賦) 2편(감춘부(感春賦) 외), 사(辭) 3편(농은와사기정신상사태등(聳隱窩辭寄呈申上舍泰登) 외), 시(詩) 140수(상춘만영(賞春謾詠) 외), 서(書) 28편(여식산이장만부(與息山李丈萬敷) 외), 잡저(雜著) 13편(자서(自敘) 외), 序 3편(사서찰요도설서(四書撮要圖說序) 외), 기(記) 7편(팔지재사기(八智齋舍記) 외), 발(跋) 3편(회당선생년보발(悔堂先生年譜跋) 외), 잠명(箴銘) 10편(원일이잠(元日二箴) 외), 설(說) 7편(경설(敬說) 외), 변(辨) 1편(유양윤제공하저이천행장변(游楊尹諸公下著伊川行狀辨)), 상량문(上樑文) 1편(花봉정사상량문(峯精舍上樑文)) 등이, 권4~6에는 제문(祭文) 8편(제안계호성세문(祭安季皐聖世文) 외), 애사(哀辭) 4편(족형상사공중모애사(族兄上舍公重模哀辭) 외), 유상(遺狀) 7편(조고처사부군행장(祖考處士府君行狀) 외), 묘갈명(墓碣銘) 1편(처사영안이공묘갈명(處士迎安李公墓碣銘) 외) 등이 수록되어 있고, 부록(附錄)으로 년보(年譜), 언행습록(言行拾錄), 만사(輓詞) 29수, 제문(祭文) 18편, 행장·묘갈명·고유문·후서(行狀·墓碣銘·告由文·後敘)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치재선생문집(二恥齋先生文集)》은 후손 상헌(相憲)과 돈식(敦植) 등이 저자의 유문을 수습·편집하고 김도화·김서일(金道和·金瑞一) 등에게서 서문을 받아 1899년(광무 3)에 목판으로 간행하였다. 권말에는 상헌(相憲)과 돈식(敦植)의 발문이 수록되어 있다.

오세손(五世孫) 신상헌(申相憲)이 신정모(申正模)의 유문(遺文)을 수습하였다. 1864년 고종이 즉위하면서 저자의 복권이 이루어져 본격적인 문집간행의 길이 열렸다. 그해에 이돈우(李敦禹)(1807~1884)에게 행장을 받고, 1886년 김서일(金瑞一)(1694~1780)이 문집후서(文集後敘)를 쓰고, 1898년 장석용(張錫龍)(1823~1906)이 묘갈명을 지었다.

문집간행의 구체적인 발의는 1887년에 시작되어 문중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김도화(金道和)(1825~1912)의 서문을 받고, 상헌의 발문과 종오세손(從五世孫) 신돈전(申敦楨)의 발문을 받아 1898년 문집이 완성되었고 1899년에 간행되었다.

저자와 관련된 자료로는 1980년 이치재문헌간행소(二恥齋文獻刊行所)에서 발간된 {소행록(素行錄)} 10권 3책이 있다. 저자가 무고로 무신난(戊申亂)에 연루되어 사망하였으므로 무신난의 처리과정에서 희생된 인물의 사례를 이해하는데 의미 있는 자료로 평가된다. 또한 18세기 전반 안동을 중심으로 영남문인들의 학문적 문제의식과 교유망을 이해하는데도 귀중한 자료라고 판단된다.

편찬및간행

저자의 유문은 아들 申邦烈과 申光烈이 家藏 초고를 바탕으로 수습하여, 戰兢齋 金瑞一에게 校正과 狀文을 의뢰하였으나 그 대신 저자의 행력에 대한 변호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後敍를 받고, 문집의 草稿本을 만들어 두었다.

그 후 1864년에 저자가 복권되자 증손 申冕璧(1803~1868)이 肯庵 李敦禹에게 저자의 行狀을 받고, 가장된 초고본을 재정리하여 편집하였다.

1887년에 문집을 營刊하자 의논이 일어나면서 저자의 5대손 申相憲(1842~1911)이 金道和와 함께 교정하고, 1898년에 張錫龍이 지은 저자의 묘갈명 등을 새로이 부록에 추가하여 이듬해인 1899년에 목판으로 간행하였다. 이때 재정적 한계로 시문의 일부만을 編刊하였으며, 저자가 유배지에서 편찬한 「素行錄」은 간행하지 못하였다. 《초간본》이 본은 현재 姜景勳氏, 국립중앙도서관(한46-가581), 규장각(古3428-457), 장서각(K4-6411) 등에 소장되어 있다.

그 밖에 「소행록」은 6대손 申世煥, 申啓煥, 申紀煥 형제가 10권 3책으로 騰寫하고, 7대손 申基勳이 부록을 추가하여 1980년에 石版으로 간행하였으며, 현재 국립중앙도서관(古2506-文40-8),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치암C1-A249) 등에 소장되어 있다.

본서의 저본은 5대손 申相憲이 1899년에 목판으로 간행한 초간본으로 姜景勳 소장본이다. 본 영인저본 중 권2의 제9~48판은 판차가 '一~四十'으로 誤記되어 있다.

序(金道和 撰), 文集告成文(申相夏 撰), 跋(申相憲·申敦植 撰), 素行錄(申正模 編), 答申邦烈(金瑞一 撰, 戰兢齋集 卷2) 등에 의함

구성과내용

본집은 6권 3책이다. 권수에는 1898년에 지은 金道和의 序와 目錄이 수록되어 있다.

권1은 賦(2), 辭(3), 詩(82題)이다. 賦와 辭는 1724년에 지은 <龔隱窩辭寄呈申上舍>를 제외하면 모두 유배 중에 지은 것들이다. 이 중 <陰厓辭>는 1741년 迦葉山을 유람할 때 蘭草寺의 남쪽에서 李紆가 己卯士禍 이후 은거할 때 노닐던 곳을 발견하고 느낀 점을 노래한 글이다. 권2의 전반부까지 수록된 시는 저자가 17세 때 지은 <丁亥春讀書>를 시작으로 유배지에서 즐기기에 전에 지은 <病中口號古詩一章>까지 詩體 구분 없이 저작 연도순으로 수록되어 있다. 유배 이후에 지은 시들이 많은 수를 차지하며, 벗들과 여러 지역을 유람하며 지은 유산시와 모친과 가족들을 그리워하는 시가 자주 보인다. 그 가운데 <白雲精舍雜詠>은 유배 생활의 답답함을 잊기 위하여 자주 방문하던 八影山의 백운정사와 주위의 풍경들을 노래한 연작시로서, 칠언절구 20수와 오언절구 14수로 되어 있으며 창작의 배경을 서술하고 있는 長文의 詩序가 있어 1733년 당시 저자의 심적 정황을 엿볼 수 있다.

권2는 詩(31), 書(20)이다. 書는 李萬敷, 李栽, 李, 權相一, 李光庭, 柳升鉉, 申弼貞, 李重煥, 鄭之鏤, 河瑞龍에게 보낸 것이다. 그중 <與密菴李丈>의 別紙는 이재에게 「朱書講錄刊補」와 「近思錄」에 대하여 의문 나는 점을 조목별로 정리하여 질문한 것이다. <答密菴李丈>은 戒懼가 動靜을 겸하는가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것이다.

권3은 書(8), 雜著(7), 序(3), 記(7), 跋(3), 箴銘(7), 說(7), 辨(1), 上樑文(1)이다. 書는 李景翼, 洪重寅, 洪重徵, 吳尙遠, 金瑞一, 南耆, 李眞望, 申德涵, 伯兄 申彥模에게 보낸 것이다. 雜著에는 戊申亂 당시에 慶尙監營에 보고하기 위하여 지은 <賊變時報營草>와 의금부에서 심문을 받을 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하여 지은 <陳情文>이 포함되어 있다. <悔堂先生年譜跋>은 1748년 6대조 申元祿의 문집을 校正하고 연보를 지은 내력을 기록한 글이다. <二恥齋銘>은 저자가 자신에게 나라를 배반하여 충을 어기고 부모와 떨어져 孝를 훼손하게 된 두 가지의 부끄러운 과오가 있음을 잊지 않기 위하여 유배소의 小齋를 '二恥齋'로 명명하고 그 경위를 기록한 글이다. <游楊尹諸公不著伊川行狀辨>은 程頤의 문하에 여러 뛰어난 제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행장이 지어지지 않고 그 대신 후대에 주자에 의해 연보가 만들어진 이유에 대하여 논한 글이다.

권4는 祭文(7), 哀辭(3), 誄文(1), 遺狀(7), 墓碣銘(1)이다. 제문은 安季臯, 鄭之錄, 申德浩, 伯從叔, 모친 宣城李氏, 부인 順興安氏와 東萊鄭氏에 대한 것이다. 애사는 從兄 申重模, 李猶龍, 李子達을 위해 지은 것이다. 뇌문은 李裁를 위하여 지은 것이다. 유장은 조부 申文錫, 伯祖 申禹錫과 아버지 형제들의 행장과 두 부인에 대한 行略이다. 묘갈명은 李東美에 대한 것이다.

권5~6은 附錄이다. 권5는 저자의 백형 신언모가 작성한 연보, 아들 申邦烈이 지은 言行拾錄, 金星慶, 許昶 등이 지은 挽詞 29편, 許寶, 李萬甲 등이 지은 제문 10편이 수록되어 있다. 권6은 許邊, 許澈 등이 지은 제문 8편, 李敦禹가 1864년에 지은 행장, 張錫龍이 1898년에 지은 墓碣銘, 1864년에 복관이 되어 종후손 申錫祐와 이돈우가 지은 告由文 2편, 金瑞一이 1766년에 지은 文集後跋, 5대손 申相憲이 1898년에 지은 跋과 종후손 申相夏가 지은 文集告成文이 수록되어 있다.

권미에는 종5대손 申敦植이 1899년에 지은 跋이 있다.

신정주(申鼎周) 문인 학자

이칭/별칭	경백(景伯), 도와(陶窩)
분야	역사/전통 시대, 성씨·인물/전통 시대 인물
유형	인물/문인·학자
지역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구미리
시대	조선/조선 후기
출생	1764년연표보기 - 출생
활동	1783년 - 향시에 급제
몰년	1827년연표보기 - 사망
출생지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길천리
거주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구미리
수학	옥련사 - 경상북도 의성군 안평면 삼춘리
묘소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구미리 금산

성격

유학자

성별 남

본관 아주(鵝洲)

[정의]

조선 후기 의성 출신의 학자.

[가계]

본관은 아주(鵝洲). 자는 경백(景伯), 호는 도와(陶窩). 신성구(申聖龜)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신도발(申道潑)이고, 아버지는 신종인(申種仁)이며, 어머니는 선산 김씨(善山 金氏) 김기대의 딸이고, 부인은 김해 김씨(金海 金氏) 김원묵(金元默)의 딸이다.

[활동 사항]

신정주(申鼎周)[1764~1827]는 3~4세에 글을 해독하기 시작해 7~8세에 『통감(通鑑)』, 10세에 『소학(小學)』과 사서(四書), 12세에 삼경(三經)을 읽었다. 1779년(정조 3) 옥련사(玉蓮寺)에서 공부하였으며, 이듬해에는 족부(族父) 신체인(申體仁)에게 수학하고, 정종로(鄭宗魯)의 문하에서도 공부하였다.

1783년 향시(鄉試)에 급제하고, 이어 1809년(순조 9)에는 영남의 명망 있는 여러 학자들과 더불어, 홍여하(洪汝河)가 편찬한 『휘찬려사(彙纂麗史)』 교정 작업에 참여하였으며, 구미[지금의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구미리]로 거처를 옮겼다. 이어 1812년 『구장지(龜庄誌)』와 「구미촌향약(龜尾村 鄉約)」을 지어 주민 교화(教化)에 힘썼다.

1817년 대구의 팔공산(八公山)에 가서 평산 신씨(平山 申氏)와 아주 신씨가 분파되는 사적(事蹟)을 고찰하였다. 이후 호서(湖西) 지방을 두루 유람하며, 여러 시와 글을 남겼다고 한다. 만년까지 과거에 뜻을 두지 않고 오로지 학문 연구와 향약 실시 같은 향촌 교화에 주력하여 '학행(學行)'으로 고을에서 이름을 높였다.

[학문과 저술]

문장에 능하여 많은 저술을 남겼는데 「만록(漫錄)」, 「호서 기행록(湖西 紀行錄)」 등이 6권 3책의 문집 『도와집(陶窩集)』에 전한다. 문집에 수록되어 있는 「자경육잠(自警六箴)」과 「암실명(暗室銘)」을 지어 자신의 경계로 삼았으며 『구장지(龜莊誌)』는 지금까지 아주 신씨가 세거하고 있는 구장(龜莊)[현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구미리]의 지리지이다.

[묘소]

묘는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구미리 금산(錦山)에 있다.

도와집(陶窩集)

조선 후기의 학자 신정주(申鼎周)의 시문집. 6권 3책. 목판본. 1863년(철종 14) 그의 제자 신조헌(申祖憲)과 족부(族父) 휴인(休仁) 등에 의해 간행되었다. 서문은 없고 권말에 홍우정(洪宇正)·이정우(李廷佑)의 제발(題跋)이 있다.

권1에 시, 권2·3에 서·제문, 권4에 애사·자사(字辭)·유사·행록, 권5에 잠(箴)·명(銘)·서(序)·기·지발(識跋)·상량문·묘표, 권6은 잡저와 부록으로 행장·만사·제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시는 주로 제영(題詠)·영물(詠物)·수연운(晬宴韻)·만사 등이고, 서(書)는 사사로운 문안편지보다는 학문에 관한 문답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경전(經傳)의 훈의(訓義)에 대해 많은 논답(論答)이 있다.

잡저 가운데 <용학도후서 庸學圖後序>는 대개 이기(理氣)에 관한 논변으로, 그 이론이 명쾌해 경학(經學)을 연구하는 데 훌륭한 자료가 된다.

잠 가운데 <자경육잠 自警六箴>과 명 중의 <암실명 暗室銘> 등은 자신의 나태함을 경계하고 마음을 전일(專一)하게 가지는 데 대한 잠계(箴戒)로서 후인들의 규범이 되는 명언들이며, 저자의 조행(操行)과 수양 정도를 엿볼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

이밖에도 <유해정록 遊海亭錄>·<유청량산록 遊淸凉山錄> 등의 기행록은 관람한 주위의 경관을 운치 있게 묘사함으로써 문장이 훌륭하다는 평을 들었는데, 초년에 사장(詞章)에 힘쓰다가 늦게 성리학자인 정종로의 문하에서 이학(理學)을 공부한 저자의 문장과 사상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장서각도서에 있다.

신종환(申宗煥) 독립운동가

분야	역사/근현대 , 성씨·인물/근현대 인물		
유형	인물/의병·독립운동가		
지역	경상북도 의성군 춘산면 금오리	시대	근대/근대
출생	1890년 11월 20일연표보기 출생		
활동	1919년 4월 2일 경상북도 의성군 춘산면 금오리에서 독립만세 시위 준비중 체포됨 1919년 4월 17일 대구 지방 법원에서 징역 8월형을 선고 받음		
몰년	1968년 8월 29일연표보기 사망		
추모	1992년 대통령 표창		
성격	독립운동가	성별	남

본관은 아주(鵝洲). 자는 순부(順夫), 호는 오봉(梧峰). 고려 충신 효자 신우의 후예이고, 구미파조(龜尾派祖) 신광귀(申光貴)의 후손이다. 아버지는 신몽득(申夢得)이고, 부인은 함안 조씨(咸安趙氏)이다. 아들은 신흥망(申弘望)이고, 형제로는 신지효(申之孝), 신지신(申之信), 신지의(申之義), 신지행(申之行), 신지경(申之敬), 신지훈(申之訓) 등이 있다.

[활동 사항]

신지제(申之悌)[1562~1624]는 학봉 김성일과 유일재 김언기의 문하에서 수학하고, 1589년(선조 22) 증광 문과 갑과에 급제하여 정언, 좌랑, 문학, 부사 등 내외 요직을 역임하였다. 예안 현감 때에는 죄수를 석방하여 농사에 전념토록 하였다. 임진왜란 때는 열읍이 붕괴하고 백성들은 굶주리고, 나라는 초토화되었다.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경상북도 예안, 안동 겸관으로 의병을 모집하고 구휼에 전념하였다.

의병 모집을 위해 단기(單騎)로 안동 용궁 방면으로 다니다가 왜병 70여 명에게 포위되었으나 과거 훈방된 죄수가 은공을 갚아 목숨을 건진 일이 있었다. 예안, 안동 겸관으로 있을 때 구휼한 백성이 수천에 이르렀다.

다시 예안에 가서 의병장 김해(金垓)와 약속하여 피차 나라일로 목숨을 잃을 때에는 처자를 의탁하기로 하였다. 뒤에 김해는 경주 진중으로 출발하였고, 뒤에 순국하였다. 그 때 선생의 백씨가 왜군의 칼에 왼쪽 어깨를 크게 다쳤으며, 혈서로 중씨에게 “국가에 몸을 바쳤으니 나라 일에 전력하라.” 하였다. 그 길로 경상북도 청송군 주왕산에 진을 쳤으나 1596년 4월 순찰 종사관의 명을 받아 순찰 임무를 띠고 팔공산에 이르러 열읍의 수령에게 전쟁에 나아가 “일사종시 동난사(一死終始 同難事).” 하도록 했다. 다시 함양 화왕산성에서 망우당 객재우와 동맹 창의하고 국가에 충성으로 활약하였다.

임진왜란 이 끝날 때까지 통제사 종사관, 삼영 종사관 등을 역임하였으며, 왜군이 물러난 후에는 여러 고을의 판관 등을 지냈다. 창원 부사 재직 시에는 명(明) 화적 정대립(鄭大立) 등을 잡은 공로로 교서를 받고 통정대부로 승진하였으며, 인조 때는 승지(承旨)를 역임하였다. 선무호성훈(宣武扈聖勳) 1등에 올랐다. 퇴관 후 권귀(權貴)를 탐하지 않고 낙향하여 인재를 양성하였으며, 10리나 되는 구미보를 축성하여 주변 땅을 옥답으로 만들었다. 인조반정 후 인조의 엄소(嚴召)를 받았으나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저술 및 작품]

신지제의 전적·고문서의 수량은 8종 5책 78매이다. 원래 오봉 종택이 있는 의성군 봉양면 구미리 251에 보관하였다가, 보존을 위해 경상북도 안동시에 있는 한국 국학진흥원에 위탁 관리하고 있다.

목록을 살펴보면, 필사 원본으로는 『영남동도회첩(嶺南同道會帖)』, 『장사목록(長沙目錄)』[효종 3년 도승지 이시모의 탄핵 사건으로 평안도 벽당에 유배 갔을 때 일기], 『조선 팔도 지도(朝鮮八道地圖)』[17세기 말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 『재사종의(齋舍宗議)』[기제(忌祭), 묘제(墓祭), 묘

위토(墓位土)에 관한 완의(完議), 『구미보 신장도목 완의(龜尾狀 新粧都目 完議)』[신지제가 축보(築狀)한 구미보에 관한 내력과 완의, 구미보 몽리호(蒙利戶)의 답수(答數)와 경작자 명단, 수세액 등 기재, 시기는 17~19세기], 『갑진걸물절왜사소(甲辰乞勿絶倭使疏)』, 『오봉집(梧峰集)』 4책 등이 있다. 고문서로는 신지제 부자의 교첩지 등 49매, 유지 2매, 교서 1매, 시권 3매, 혼례간 2매, 녹패 3매, 준호구 22매 등이 있다.

[상훈과 추모]

전주 판관 재임 시에는 선정을 베풀어 송덕비가 세워졌다. 1676년(숙종 2년) 이조 참판 증직이 내렸으며, 뒤에 사림의 공의가 준발하여 장대 서원을 창건하고, 송은 김수광, 회당 신원록, 경정 이민성과 함께 장대 서원에 봉향되었다. 오봉 종택은 경상북도 문화재 자료 제187호이며, 전적·고문서는 경상북도 유형 문화재 제345호로 지정되어 있다.

오봉집(梧峰集)

오봉 신지제(梧峯 申之梯)(1562~1624)의 詩文集이다. 그의 현손(玄孫)인 신진구(申震龜)가 편찬하여 1740년(영조 16) 의성 장대서원(義城 藏待書院)에서 개간(開刊)한 것이다. 표지서명은 오봉집(梧峯集)이다.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오봉선생문집(梧峯先生文集)〈규(奎) 15708-1-4〉본이 후대에 필사된 것임에 비해, 이는 간행된 것이어서 초판이 간행된 형태를 엿볼 수 있다. 뒷면에는 묵서(墨書)로 '경신동신상사진구씨이세의인장송기, 추강장(庚申冬申上舍震龜氏以世誼印粧送寄, 秋崗藏)'라고 쓰여 있다.

1740년(영조16) 저자를 제향한 의성 장대서원(藏待書院)에서 간행하였다. 높은 이광정(訥隱 李光庭)의 서문(1739), 현손 진구(震龜)의 문집후기(1740), 권상일(權相一)의 발문(1739)이 있으며, 이광정이 찬집과 교정을 담당하였다. 원집 7권과 부록 2권을 합쳐 4책이다.

권1-권5는 시인데, 권2-권4는 「회산잡영(檜山雜詠)」으로 1613년부터 1618년까지 창원부사로 재직 중에 지은 시를 묶은 것이다. 권5는 「구당만록(龜堂漫錄)」으로 창원에서 돌아와 구당에 은거하면서 지은 시를 묶은 것이다.

권6에는 「유청량산록(遊淸凉山錄)」, 「월영대기(月影臺記)」, 「회산잡영서(檜山雜詠序)」 등 3편의 글을 실었다. 권7에는 차자(筍子) 1편, 교서(敎書) 3편, 제문 8편, 편지 6편이 있고, 보유(補遺)로 만사(輓詞) 1편, 시 1수, 제문(祭文) 1편이 있다. 부록상(附錄上)에는 저자의 행장, 일사, 묘갈명, 묘지명(行狀, 逸事, 墓碣銘, 墓誌銘)을 실었고, 부록하(附錄下)에는 저자에 대한 제문(祭文) 4편, 만사(輓詞) 19수와 장대서원(藏待書院)의 상량문(上樑文) 등을 실었다.

규장각 소장본은 2종인데, 〈古 3428-335〉는 목판본이고 〈奎 15708〉은 필사본이다. 이와는 별도로 {오봉문초(梧峯文鈔)}(〈奎 12074〉)도 있는데, 「헌부차자(憲府筍子)」, 「상방백서(上方伯書)」 및 저자의 약력(略歷)이 실려 있는 필사본으로, 원본 표지에는 {오봉문고(梧峯文考)}로 표기되어 있다.

이외에 국립중앙도서관에는 {오봉별집}도 전한다. 여기에는 시(詩) 59수, 「사승지소(辭承旨疏)」, 「상방백서(上方伯書)」, 「답설월장서(答雪月丈書)」(4편), 「서두시초선권후(書杜詩抄選卷後)」, 「망형수초성리권후지(亡兄手抄性理卷後識)」, 「제학동이공문(祭鶴洞李公文)」, 「제노구중반친문(祭盧懼仲反襯文)」과 저자의 「년보(年譜)」, 김이만(金履萬)(1683~1758)의 발문(1742)이 수록되어 있다.

7권 4책. 목판본. 1740년(영조 16) 현손 진구(震龜)가 편집, 간행하였다. 권두에 이광정(李光庭)의 서문이 있고, 권말에 진구의 후지, 권상일(權相一)의 발문이 있다. 고려대학교 도서관과 성균관대학교 도서관 등에 있다.

권1~5는 시 617수, 권6은 기(記) 2편, 서(序) 2편, 권7은 차(筭) 1편, 교(敎) 3편, 제문 8편, 묘지 2편, 서(書) 6편, 습유(拾遺)에 시 9수, 제문 1편, 부록으로 행장·묘갈명·제문·만사·장대서원묘우상량문(藏待書院廟宇上樑文)·상향축문(常享祝文)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는 창원부사로 있을 적에 지은 것을 모은 「회산잡영(檜山雜咏)」 상·중·하, 은거하여 있을 적에 지은 「구당만록(龜堂漫錄)」, 선성부사로 있을 적에 지은 「유청량산록(游淸涼山錄)」 등으로 편집되어 있다.

차자의 「헌부차자(憲府筭子)」는 그가 사헌부에 재직 당시 왕에게 선정을 바라는 내용이다. 「교선무공신이광악서(敎宣武功臣李光岳書)」·「교호성공신고희서(敎扈聖功臣高熙書)」·「교오련서(敎吳連書)」 등은 임진왜란 당시에 왕이 이들 공신에게 내린 교서로서, 임진왜란 연구의 참고자료가 된다.

서(書) 가운데 「여혹인서(與或人書)」는 병마의 폐단이 농가에 극심하므로, 이의 시정을 촉구하는 서한이다. 저자의 행장은 이민환(李民奩)이, 묘갈명은 이광정이 썼다.

신지익(申之益) 효자

분야 종교/유교, 성씨·인물/전통 시대 인물
유형 인물/효자·열녀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시대 조선/조선 후기
집필자 박홍갑
성별 남
생년 1588년
몰년 1649
본관 아주(鵝州)
출신지 청주
상훈 정려

[정의]

조선 후기의 효자.

[가계]

본관은 아주(鵝州)이고, 효자 신심(申鐔)의 아버지이고, 효자 신협(申鋏)의 숙부이다.

[활동사항]

일찍이 부친을 여의고 홀어머니를 지극한 효성으로 모셨다. 어머니가 병환이 나자 목욕재계하고 북두칠성에 빌었으며, 손가락을 잘라 그 피로 어머니 병간호를 하였다. 상을 당하여서는 애통함이 지나쳐 곡을 하다 혼절하기도 하였으며, 최질을 풀지 않고 집상(執喪)하였다. 이 일이 조정에 크게 알려져 조선조 숙종 때에 정려(旌閭)되었다.

1636년 (인조 14) 적병을 만나 위기에 처했을 때 그의 아들 신심이 부모를 해치지 말도록 적병에게 애원하여 무사하였고, 그 후 그의 처가 병환이 들자 아들 신심이 손가락을 끊어 어미를 구출하자 국가에서 효자로 정려하였다. 효자로 정려되었던 신협은 그의 조카이다. 한 집안에서 3명의 효자가 나와 나라에서 함께 포상하고 격려하였다.

승지(承旨)를 지낸 오재(梧齋) 신지제(申之悌)의 종제(從弟)로 학행(學行)이 있었다. 부친을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를 지극히 봉양하였다. 어머니 병환에 목욕재계 후 북두칠성에 빌고, 손가락을 잘라 피를 마시게 하였다. 상(喪)을 당해서는 호읍(號泣)하다 혼절하기도 하였으며, 최질(衰絰)을 풀지 않고 집상(執喪)하는 등 효행(孝行)이 높아서 신지익과 사촌 신협(申鋏), 아들 신심(申鐔)과 함께 충북 청원군 미원면 가양리 슬골 삼효각(三孝閣)에 1703년(숙종 29) 효로써 정려(旌閭)되었다. 손자 신응태(申應泰)는 우암(尤庵)의 문인으로 학문이 뛰어나고, 『사서제요도설(四書提要圖說)』 등 많은 저술을 남겼다. 우암 송시열(宋時烈)이 행장(行狀)을 찬(撰)하였고, 공(公)에 대한 일이 『삼강록(三綱錄)』에 기재되었다. 청주(淸州)의 검암서원(儉巖書院)에 배향(配享)되었다.

[상훈과 추모]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화창리에 삼효각(三孝閣)을 지어 추모하고 있다.

신지효(申之孝) 유학자

이칭/별칭	달부(達夫), 응암(鷹巖)
분야	역사/전통 시대, 성씨·인물/전통 시대 인물
유형	인물/문인·학자
지역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풍리리

시대	조선/조선 전기		
출생	1561년	연표보기	출생
몰년	1592년	연표보기	사망
추모	2005년 금산 서원에 배향		
거주	거주지 -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풍리리		
묘소	묘소 -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광현리		
사당	금산 서원 -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구산리		
재실	응암재 -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길천리		
성격	유학자	성별	남
본관	아주(鵝洲)		

정의]

조선 후기 의성 지역 출신의 유학자.

[가계]

본관은 아주(鵝洲). 자는 달부(達夫). 호는 응암(鷹巖). 아버지는 증 좌승지(贈 左承旨) 신몽득(申夢得), 어머니는 증 공조 참의(工曹 參議) 박민수(朴敏樹)의 딸인 증 숙부인(贈 淑夫人) 월성 박씨(月城 朴氏), 할아버지는 참봉(參奉)을 역임한 신응규(申應奎), 증조할아버지는 부장(部將)을 역임한 신한(申翰), 부인은 습독(習讀)을 역임한 김준창(金俊昌)의 딸 함창 김씨(咸昌 金氏)로 알려져 있다. 신지효는 7형제 중 장남이다. 중제(仲弟) 신지제(申之悌)가 문과 급제하며 현달하였다.

[활동 사항]

신지효(申之孝)[1561~1592]는 1561년(명종 16) 출생하였으며, 경상도 의성현 신례동(新禮洞)[현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풍리리]에 거주하였다. 어려서부터 용모가 수려하고 효우가 있었다고 한다. 18세 때 교임(校任)이 되었으며, 25세 때 고을 사람들이 교장(校長)으로 추대하였다.

임진왜란 이 일어난 1592년(선조 25) 5월 왜병을 피해 어머니 고창 오씨(高敞 吳氏)[아버지 신몽득의 후처]를 모시고 응동(鷹洞)[또는 천동(泉洞), 현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길천리] 암혈(巖穴)에 피신하였다. 그러나 쫓아온 왜병에게 발각되어 왼쪽 어깨를 칼로 베이고 말았다. 피를 흘리며 죽기 직전 신지효는 침을 입으로 씹어 붓을 만들었다. 이어 예안 현감(禮安 縣監)을 지내고 있던 중제(仲弟) 신지제에게 주기 위한 혈서(血書)를 쓰고 난 뒤 죽음을 맞이하였다.

그 혈서에는 “나의 몸가짐이 조밀하지 못하고 효성이 없음이 이보다 더할 수가 있겠는가? 늙은 부모는 여러 아우들이 있어 받들어 모시고 있거니와, 군(君)은 이미 몸을 왕실에 맡긴지라. 직수(職守)가 있는 터이니 마땅히 난에 임하여 임금의 명을 받들고 실석(失石)을 무릅쓰고 죽음에 나갈 것이며, 내 시체를 찾지 못할까 걱정하여 다행히 발바닥에 '선성(宣城)[예안의 다른 이

름]’ 두 글자를 써서 알도록 하였노라![吾之藏身 不密不孝 孰甚焉 老親則有諸弟奉侍 君既委身王室 有職守 當臨亂 授命而失石 赴死之日 恐無以尋屍 幸於足掌 書宣城二字 俾識之]”라고 쓰여 있었다고 한다.

[학문과 저술]

중제(仲弟) 신지제와 더불어 김언기(金彦璣) 문하에서 수학하며, 퇴계학맥을 계승하였다. 별도로 남긴 유고는 없으며, 유문으로 『응암실적(鷹巖實蹟)』이 있는데, 1817년 편찬한 1책 44장의 목판본과 1933년에 편찬된 1책 72장의 석인본이 전하고 있다. 『응암실적』에 수록된 「혈서습록(血書拾錄)」은 신지제의 후손 신체인(申體仁)이 작성한 것으로 신지효의 '혈서'가 작성된 경위와 그것을 기리는 의의 등이 언급되어 있다.

[묘소]

신지효의 유골을 수습한 후, 현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광현리에 묘소를 마련하였다.

[상훈과 추모]

금산 서원(錦山書院)[현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구산리에 위치]에 중제(仲弟) 신지제(申之梯), 신지제의 후손 신체인과 함께 배향되어 있다. 금산 서원은 신체인이 강학을 위해 1782년 건립한 금연 정사를 1977년 중건하고, 1981년 서원으로 변경한 것이다. 신지효의 위패는 2005년 추향된 것이다. 추향 당시 봉안문은 류용훈(柳龍勳)이 작성하였다. 한편 신지효가 왜군에 의해 죽은 응동[현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길천리]에는 재실인 응암재(鷹巖齋)와 유허비(遺墟碑)가 건립되어 있다.

응암실적(鷹巖實蹟)

『응암실적』은 신지효(申之孝 ; 1561~1592)의 실적이다. 신지효의 자는 달부(達夫), 호는 응암(鷹巖), 본관은 아주(鵝洲)이다.

1592(宣祖 壬辰)에 난리를 피하다가 적을 만나 죽었다. 임진왜란이 급할 때 선생의 아우 오봉(梧峰) 지제(之梯)는 선성현령(宣城縣令)으로 있고 선생은 늙은 부모를 모시고 집에 있다가 바위틈에 숨어 있더니 왜적(倭賊)이 쫓아와서 칼로 선생의 왼쪽배를 쳐서 피가 흔건히 흐르는 지라 선생이 목숨이 끊어질 때 침을 입으로 씹어 붓을 만들어 가지고 血書로 옷소매에 써서梧峰에게 주기를 “나의 몸가짐이 주밀(綱密)하지 못하고 효성이 없음이 이보다 더할 수가 있겠는가?, 늙은 부모는 여러 아우들이 있어 모시고 있거니와 쫓은 이미 몸을 王室에 맡긴 지라, 職守가 있는 터이니 마땅히 亂에 임하여 임금의 命을 바뉘어 矢石을 무릅쓰고 죽음에 나갈 것이며, 내 시체를 찾지 못할까 걱정하여 다행히 발바닥에 宣城 두 자를 써서 알도록 하였노라” 하였다. 조선때의 학자로 명성이 높았다. 「出典 : 嶺南人物考, 1978」

1660년에 모친상을 당하고 1664년에 부친상을 당하자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사모하듯 지극 정성으로 전후 상례를 치렀으며, 그 후로는 과거를 단념하고 실천의 공부에 전념하였다. 이후 학문 연구와 후진 양성에 주력하였다. 집 앞에 매화나무와 대나무를 심고 당호를 매죽헌(梅竹軒)이라 하였다. 아울러 팔지산(八智山) 아래에 별업(別業)을 개척한 뒤, 그곳의 지명을 팔지(八智)[현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팔성리]로 고치기도 했다.

[학문과 저술]

문집으로는 4권 2책의 『인재집(忍齋集)』이 전하는데, 1931년 후손 신상하(申相夏)가 간행하였다. 문집에 수록된 글들 가운데 「답대학문목(答大學問目)」, 「용학표리설(庸學表裏說)」, 「성학십도명(聖學十圖銘)」 등과 같은 성리학 논설들이 주목된다.

[묘소]

묘는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팔성리에 있다.

[상훈과 추모]

1858년(철종 9) 부친 신적도, 계부 신열도와 함께 단구 서원(丹邱 書院)[현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분토리]에 배향되었다.

인재집(忍齋集)

1931년 大邱에서 석인본으로 간행한 의성 출신 유학자 신채(申埰. 1610-1672) 선생의 문집 [인재선생유집(忍齋先生遺集)] 4卷 2冊 완질본으로 권두에 '後學完山柳淵楫謹序', 권말에 '八代孫申敦植謹識' 跋이 있으며 책끝에 판권지가 있다. 상태 양호하다.

본관은 아주(鵝洲)이고, 출신지는 경상북도 의성군(義城郡)이다. 부친 행상운도찰방(行祥雲道察訪) 신적도(申適道)와 모친 파평윤씨(坡平尹氏) 사이에서 4남 중 3남으로 태어났다.

형은 신연(申埏)·신탄(申坦)이고, 동생은 신점(申沾)이다. 장현광(張顯光)의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홍여하(洪汝河) 등과 학문적인 도움을 주고 받으며 도의(道義)로써 교유하였다. 광해군 재위 중에는 과거에 뜻을 두지 않았고, 인조가 등극한 뒤인 1646년(인조 24) 식년시에 진사 3등 10위로 합격하였다.

시문집으로 신상하(申相夏)가 편집·간행한 4권의 『인재집(忍齋集)』이 전하며, 문집 중에서 주목할 작품으로 『대학(大學)』을 탐구하여 문답 형식으로 집필한 「답대학문목(答大學問目)」, 『중용(中庸)』·『대학』의 관계를 연구한 「용학표리설(庸學表裏說)」, 『성학십도(聖學十圖)』를 자세하게 설명한 글로 「성학십도명(聖學十圖銘)」 등이 있다.

신체인(申體仁) 유학자

이칭/별칭	자장(子長), 회병(晦屏)
분야	역사/전통 시대, 성씨·인물/전통 시대 인물
유형	인물/문인·학자
지역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구미리
시대	조선/조선 후기
출생	1731년연표보기 출생
몰년	1812년연표보기 사망
추모	1977년 금산 서원에 배향
출생지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구미리
거주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구미리
수학	금연정사 -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구산리
묘소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화전리 동곡
사당	금산 서원 -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구산리
성격	유학자
성별	남
본관	아주(鵝洲)

[정의]

조선 후기 의성 출신의 학자.

[가계]

본관은 아주(鵝洲). 자는 자장(子長), 호는 회병(晦屏). 신숙범(申叔範)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신분구(申賁龜), 아버지는 신도만(申道萬)이고, 어머니는 의성 김씨(義城 金氏) 김민행(金敏行)의 딸이며 부인은 풍산 유씨(豊山 柳氏) 유후원(柳後元)의 딸이다.

[활동 사항]

신체인(申體仁)[1731~1812]은 3~4세 때 이웃집에서 글 읽는 소리가 들리면 말도 없이 그 집에 가서, 글 읽는 소리를 들었다는 일화가 전해질만큼 어린 시절부터 학문에 관심이 많았다. 어려서 화장산(華藏山)[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일대]의 초당에서 공부하였고, 장성해서는 김낙행(金樂行), 임필대(任必大), 이상정(李象靖)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30세 무렵에는 유학뿐만 아니라 천문·지리·의술·병가·산수(算數)·복서(卜筮) 등 여러 학문을 두루 섭렵했다고 한다.

1761년(영조 37) 향해(鄉解)에 응시해서 장원하는 등 학문적 명성이 있었지만, 벼슬에 뜻을 두지 않았다. 1782년(정조 6) 금산(錦山)[구미리]에 금연정사(錦淵 精舍)[현 금산 서원(錦山 書院)]가 완성되자 그곳에서 학문 연구와 후진 양성에 주력하였다. 1786년에는 빙계 서원(氷溪 書院)의 교석(敎席)을 주도하며 통강례(通講禮)를 행하고자, 주자(朱子)의 월삭회약(月朔會約)을 모방

해 의절까지 정해 놓았으나 실시하지 못하였다.

1788년 눈병으로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자, 존양(存養) 공부에 열중하였다. 1807년(순조 7) 경술과 문장이 모범이 된다하여 의성 현령(義城 縣令)이 천거하였고, 경상도 관찰사가 연이어 신체인의 학행을 조정에 계청하였다.

[학문과 저술]

이상정의 문하에서 함께 공부하던 280여 명의 인사들과 호문학단(湖門學團)을 구성하여 성리학을 연구하였다. 호문학단 중에서도 그는 학문이 뛰어나 호문육군자(湖文六君子) 중 하나로 손꼽히기도 했다.

그의 문집으로는 12권 6책의 『회병집(晦屏集)』이 전하는데, 19세기 후반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회병집』 권6에 수록되어 있는 「천학종지도변(天學宗旨圖辨)」은 천주교를 비판한 글로, 당시 천주교에 대한 영남 유림의 인식을 살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그 외에도 '경(敬)'의 요체에 대해 설명한 4권 2책의 『숭경록(崇敬錄)』을 저술하였으며, 정만양(鄭萬陽), 정규양(鄭葵陽) 형제의 어록인 『훈지양선생어록(塤麓兩先生語錄)』도 산교(刪校)하였다. 한편, 『아주 신씨 참판공 파보』에는 『징성록(徵省錄)』을 저술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묘소]

묘는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화전리 동곡(凍谷)에 있다.

[상훈과 추모]

현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구산리에 있는 금산 서원에 신지제(申之悌), 신지효(申之孝)와 함께 배향되어 있다. 금산 서원은 신체인이 강학을 위해 1782년 건립한 금연 정사를 1977년 중건하고, 1981년 서원으로 승격한 것이다. 신체인의 위패는 신지제와 함께 1977년 배향되었다.

회병집(晦屏集)

편찬및간행

저자는 오봉 신지제(梧峯 申之悌)와 고송 신흥망(孤松 申弘望)의 후손으로 벼슬은 하지 않은 채 산림에서 이상정(李象靖), 김악행(金樂行)의 문인으로 활동하였는데 문재(文才)와 學德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저자의 저서로는 시문 외에 聖賢들의 '敬'에 대한 요지를 편찬한 「崇敬錄」 2책이 남아 있다.

저자의 행적에 대한 기록은 族子인 申鼎周(1764~1827)가 지은 遺事(申鼎周 著, 陶窩集 卷4), 그리고 이를 가지고 저자의 아들 申灑辰(1779~1834)이 所菴 李秉遠(1774~1840)에게 부탁하여 1834년에 받은 행장 뿐이지만, 이를 통해 볼 때 이들에 의해 저자의 유적과 유문이 수습 정리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후의 편찬 간행에 대해서는 序跋文이나 다른 기록이 없어 문집의 정확한 간행 연도를 알 수가 없다. 다만 본집의 목록을 보면 권1~11까지의 내용만 있고 권12의 부록은 기록되어 있지 않은 점, 권12 전체(9판)가 활자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행장이 작성된 1834년 이전에 판각이 이루어졌고, 뒤에 활자로 보판하면서 행장을 추가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 목판 초간본의 현전 여부는 알 수가 없다.

이후 문집 사이사이에 활자를 補板하여 간행한 본이 있는데, 보판된 부분은 목록의 제5~6, 25~26판, 권1의 제9~14, 17~18판, 권2의 제1~2, 5~8, 25~26판, 권3의 제1~2, 25~26, 39~40, 47~50판, 권4의 제2~3, 12~13, 24~25판, 권5의 제1~2, 9~10, 13~14, 27~30, 35~38, 41~42판, 권6의 제3~4, 11~12, 15~16, 30~31판, 권7의 제35~36판, 권8의 제25~26판, 권9의 제11~12, 17~18판, 권10의 제1~2, 9~10, 23~24, 29~30판, 권11의 제7~8, 21, 23, 37~38, 41~42판, 권12의 제1~9판 등으로, 다시 인쇄하면서 마모가 심한 판목 대신에 활자를 이용 보판하여 후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후쇄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시기는 알 수가 없다. 따라서 본집은 저자의 아들 신익진이 유고를 수집 정리하여 목판으로 간행한 것을 바탕으로 1834년 이후 부록과 원집의 일부를 활자로 보판하여 인행한 후쇄본이다. 《후쇄본》이 본은 현재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석주D1-A1016), 국립중앙도서관(한46-가898), 장서각(K4-6689), 성균관대학교 존경각(D3B-2688) 등에 소장되어 있다.

이 밖에 저자의 저서인 「崇敬錄」 4권 2책을 후손들이 1974년에 石板으로 간행하였는데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각,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본서의 저본은 간행 경위를 알 수 없는 목판본의 후쇄본으로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장본이다. 본 영인저본 중 권1의 제18판과 권6의 제3판은 卷次가 '三'으로 오기되어 있고, 권5의 제2판은 板次가 누락되어 있다. 그리고 권3의 제17·38·52판, 권5의 제1판, 권7의 제11판, 권9의 제33판은 상태가 불량하여 동일본인 국립중앙도서관장본으로 대체하였다.

行狀(李秉遠 撰), 西山集(金興洛), 本集內容 등에 의함

구성과내용

본집은 12권 6책으로 되어 있다. 권수에 서문은 없고 목록이 있다.

권1은 詩(186題)이다. 시는 詩體 구분 없이 저작 연도별로 편차되어 있으며, 1750년부터 1811년까지 지은 시가 수록되어 있다. 장문의 并說, 并序, 後識 등을 붙여 시의 이해를 돕고 있으며, 姊兄 趙進道の 형제들과 공유하며 수창한 시 및 장편시가 여러 편 있다. 백종형 申重仁, 任必大, 洪虎吉 등에 대한 41제의 만시가 포함되어 있는데 백종형 신중인에 대해서는 11수의 연작으로 지어 깊은 슬픔을 표현하였다. 이 가운데 <送金氏妹述懷六十韻>은 金百能의 처가 된 누이 동생에 대한 애뜻한 마음을 읊은 것이고, <敬松齋>는 부친이 龜湖에 지은 小齋에 대해 읊은 것이고, <龜窩詩>는 丹溪에 있는 재종질 申鼎梅의 小屋에 勸戒의 말을 붙이고 3수를 읊은 것이다. <錦山六詠>, <錦淵十詠>, <錦里四詠>, <平錦二詠>, <晦屏二詠> 등은 금산에 지은 금연정사와 주변의 풍광을 읊은 것이다. <病中聞利林形勝喜甚略述>부터 <總述>까지 6수는 1788년에 안

질로 고생할 때, 영남 제일의 洞天 '安義三洞'의 절경을 전해 듣고 지은 것이다.

권2~5는 書(161)이다. 전체 분량 중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며, 대상 인물별로 묶어 연도순으로 편차하였는데 대체로 師友, 門人, 親戚 순으로 되어 있다. 권2는 스승 李象靖, 金樂行, 任必大 및 蔡濟恭, 李秉模, 李弘源, 柳灃, 李宜泰, 李命天, 柳聖霖, 申光翼 등에게 쓴 것이다. 이 가운데 이상정에게 1764년에 보낸 것은 「朱書講錄刊補」의 교정에 참여하는 선생을 따라 가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쓴 것이고, 1781년에 쓴 것은 '敬兼中和圖'에 대한 의혹을 질정한 것이다. 신광익에게는 별지로 '祧主旁題改不改', '庶子所生母題主稱謂' 등 喪禮, 祭禮의 禮疑에 답한 것들이다. 권3은 權正鄰, 증장 申龍起, 증형 申觀模, 姜必勉, 趙宜陽, 趙運道, 李宗洙, 金宗德·金宗敬 형제 등에게 쓴 것이다. 이 가운데 이종수에게 1786년에 쓴 편지는 「주서강록간보」의 刊役이 마무리되었지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追改할 곳이 있음을 알린 것이다. 김종덕·김종경 형제에게 쓴 편지가 많은 편으로 이들과의 학문적 교류가 활발했음을 알 수가 있는데 '致曲', 「心經講錄刊補」를 논한 장문의 편지 등이 있다. 권4는 柳長源, 李師靖, 黃啓熙, 趙進道, 趙述道, 李德中, 金道行, 金宗道, 金崇默, 柳泰春, 鄭履寅, 李萬運, 任輔, 李經祿, 金始全, 任軫, 都尙郁, 姜世文, 李堦, 金垓, 李垓 등에게 보낸 것이다. 이 가운데 1781년 이덕중에게 쓴 편지는 별지를 붙여 文章은 道義를 준칙으로 삼아 실용적이어야 함을 역설한 것이다. 이우에게는 1806년에 莊獻世子の 변무를 위한 상소를 올리는 데 앞장섰다가 완도의 古今島로 유배된 것을 위로하며 쓴 것이 있다. 이완에게는 1783년에 이상정의 문집에 대한 교정사항을 적어 보낸 것이 있다. 권5는 金宗發, 安鼎德, 申光孝, 申宅明, 金勉儒, 柳象經, 趙友愿, 金宗駿, 權得仁, 張泰殷, 金良鍵, 鄭台攝, 李東發, 종인 申冕朝·申冕周 형제, 宋國秉, 趙星復, 朴在淳, 金就礪, 趙居信·趙居讓 형제, 李垓·李垓 형제, 金宗夏, 재종숙 申道一, 족제 申立仁, 재종질 申鼎梅, 종질 申鼎沃·申鼎五·申鼎凝, 족질 申鼎周, 아들 申鼎辰과 申鼎輝 등에게 쓴 것이다. 이 가운데 1808년 정태섭에게 쓴 것은 鄭萬陽과 鄭葵陽 형제의 「墳簾兩先生語錄」을 刪校한 뒤에 보낸 것이다. 족질 신정주에게는 별지로 喪服 등에 대해 답한 것이 있다. <寄辰兒別紙>는 1775년 아들 신정진이 지은 잡저를 읽고 그에 대한 의견을 일일이 제시한 것이다.

권6은 雜著(10)이다. 이 가운데 <宗孫祖應字詞>는 종손에게 자를 '幼承'이라 지어 주고 그 의미를 서술한 것이고, <臆銘集句圖>는 1785년 錦淵精舍에서 지낼 때 詩에서 集句하는 방식대로 前賢들의 箴贊名言에서 뽑은 16구를 도식하고 설명한 것이고, <天學宗旨圖辨>은 安鼎福, 李獻慶, 趙述道 3인의 천주교 辨斥 글을 읽고 그 글에 실려 있던 '천학종지도'가 私慾을 내세웠으므로 천주학이 이단임을 증명하고, 세 사람의 설을 보완하기 위해 1791년에 쓴 것이고, <中何嘗不在裏面辨>은 南軒 張栻이 주장한 '已發之後 中何嘗不在裏面' 설을 펴는 선배들의 행태를 지적하고 朱子の 정론을 들어 후학을 경계한 것이고, <父卒三年內爲母服說>은 「儀禮」와 「通典」에 근거해 해석한 선유들의 주장을 싣고 뒤에 저자의 견해를 덧붙여 변설한 것이다. <蔡覺軒動箴說疑義>는 중국의 蔡模가 해석한 程子の 四勿箴 중 '動箴'에 대한 의문점을 적은 것이다. <書贈柳學士士鉉>은 柳台佐의 과거 급제를 축하하며 지어 준 4언시 형식의 箴言이다. <留揭氷溪院壁文>은 빙계서원에 있을 때 洞神壇에서 해마다 벌이는 巫樂의 행위를 금한다는 내용을 써서 부친 것이다. <讀書謬錄>은 독서하는 중에 「大學」, 「家禮」, 「心經」, 「孟子」 등 경서 및 전현들

의 글에서 발견한 오류를 지적하고 저자의 의견을 첨부한 것이다.

권7은 序(9), 記(12)이다. 서는 병자호란 당시 남한산성에서의 일을 기록한 由由軒 南磔의 「亂離日記」, 종백형 申重仁의 「龜洞逸稿」, 현감 徐命敏이 藏待書院에서 講會를 연 후 지은 詩와 論에 대한 後序, 재종질 申鼎梅의 <龜園贈別帖>과 「龜窩遺稿」, 孫有慶의 字 '積汝'에 대한 것, 편저인 「崇敬錄」 등에 대한 것이다. 기는 三守軒, 樂素齋, 龍岡草廬, 李師靖의 新樂堂, 李述靖의 四友堂, 洪天休의 金鑱軒, 錦山の 形勝을 기록한 것, 금산에 세운 錦淵精舍, 棣華堂, 白石亭, 申光翼의 高南精舍, 三一齋 重修 등에 대한 것이다.

권8은 識跋(12), 箴銘(4), 上樑文(4), 哀誄(6), 祝文(2)이다. 지발은 達山 張補之의 實蹟에 대한 것, 李輔의 「南溪實紀」, 「杏堂稿」, 「戊申日錄」, 6대조 申之梯의 「梧峯集」 別集, 선조 申之孝의 「鷹巖血書拾錄」, 洪彦博의 「陽坡實紀」, 「龜巖實紀」 등에 대한 것이다. 상량문은 先廟의 移建, 錦淵精舍, 梧溪里社 廟宇, 西山精舍에 대한 것이다. 애리는 李學靖, 趙錫愚, 崔恒鎭, 都吉模, 姜必勉, 金宗燮에 대한 것이다. 축문은 梧溪里社 奉安文과 常享祝文, 早谷의 世德祠 奉安文과 상향축문이다.

권9는 祭文(21), 墓表(2)이다. 제문은 종백형 신중인, 鄭儁, 외왕모 務安朴氏, 김낙행, 임필대, 장인 柳後元, 이상정, 종질 申鼎沃, 김종경, 황계희, 김승묵, 조진도, 申光翼, 柳聖霖, 李垸, 李命天, 이종수, 김종덕 등을 애도한 것이다. 묘표는 종백형 신중인, 종질 申鼎沃에 대한 것이다.

권10은 墓誌(12), 墓碣銘(3), 碑文(2)이다. 묘지는 李軫, 尹重邦, 李夢靖, 金謹信, 부친 申道萬, 모친 義城金氏, 조부 申賁龜, 증조부 申叔範, 종조 申震龜, 백부 申道三, 중부 申道九, 아들 申鼎辰에 대한 것이고, 묘갈명은 申宅誠, 金蕃, 張宇遠에 대한 것이다. 비문은 金燁·金煜·金燦 三烈士를 기린 제단비, 李景曾에 대한 묘비이다.

권11은 行狀(9), 傳(1)이다. 행장은 朴文淹, 金震護, 權應生, 權炆, 鄭葵陽, 孫守曾, 李臨厚, 이상정, 申祐에 대한 것이다. 전은 麗末鮮初 때 사람 白巖 金齊海에 대한 것이다.

권12는 附錄이다. 李秉遠이 1834년에 지은 행장이 실려 있다.

신협(申缺) 효자

분야	종교/유교, 성씨:인물/전통 시대 인물
유형	인물/효자·열녀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시대	조선/조선 후기
성별	남
생년	미상
몰년	미상
본관	아주(鵝州)

출신지 청주
형 효자 신심(申鐔) 종제
상훈 청원군 미원면 화창리에 삼효각(三孝閣)으로 정려

[정의]

조선 후기의 효자.

[가계]

본관은 아주(鵝州)이며, 청원군에서 효자로 이름 높았던 신지익(申之益)의 조카이고, 효자 신심(申鐔)과 종형제이다.

[활동사항]

어머니가 병환이 들자 지극정성으로 간호하였고, 차도가 없자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그 피로 어머니를 소생시켜 주위로부터 효성이 크게 알려 졌다. 그의 효성은 집안 내력이었다. 숙부 신지익과 종형제 신심 등 한 집안에서 3명의 효자가 나와 나라에서 함께 포상하고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화창리에 삼효각을 지어 정려(旌閭)하였다.

신홍망(申弘望) 문신

분야 역사/전통 시대 , 성씨·인물/전통 시대 인물

유형 인물/문무 관인

지역 경상북도 의성군

시대 조선/조선 후기

출생 1600년 출생

활동 1639년 - 별시 문과에 급제

1652년 - 평안도 벽동으로 유배

1652년 - 해배

1659년 - 풍기 군수에 임명

몰년 1673년 사망

추모 1691년 - 의 거처에 낙선당 건립

1984년 - 유허비 건립

거주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구미리

묘소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풍리리

유허비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구미리

성격 문신

성별 남

본관 아주(鵝洲)

관직 승문원 판교(承文院 判校)

[정의]

조선 후기 의성 출신의 문신.

[가계]

본관은 아주(鵝洲). 자(字)는 망구(望久), 호는 고송(孤松). 신응규(申應奎)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신몽득(申夢得)이며, 아버지는 승지 신지제(申之悌)이고, 어머니는 함안 조씨(咸安 趙氏)로, 조지(趙址)의 딸이며, 부인은 영천 이씨(永川 李氏) 이민환(李民奐)의 딸이다.

[활동 사항]

신홍망(申弘望)[1600~1673]은 1627년(인조 5) 진사시에 급제한 뒤, 강릉 참봉(康陵 參奉)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1639년(인조 17) 별시 문과 병과(丙科)에 급제하여 1645년 승문원 주서(承文院 注書)가 되었으나 모친의 병환으로 사직하였다. 1646년 전적(典籍). 병조 좌랑(兵曹 佐郎). 정언(正言), 1647년(인조 25) 예조 좌랑(禮曹 佐郎). 전주 판관(全州 判官) 등을 역임하였다.

1652년(효종 3) 지평(持平)이 되었는데 이때 도승지 이시매(李時樑)가 자못 패만(悖慢)한 것을 지평 이온발(李溫發)이 상주(上奏)하다가 탄핵을 당하였다. 이 때 이시매는 자기의 밝음을 선현을 이끌어 증명하려 하였다. 신홍망은 이를 듣고 직접 그 소(疏)를 보니 실로 모욕적이어서 이를 단독으로 왕에게 진달하였다. 이것이 빌미가 되어 당론을 타파하고자 하는 마당에 호당(護黨)한다 하여 탄핵을 받고 벽동(碧潼)으로 유배되었다가 두달 뒤 풀려났다.

1656년 울산 부사(蔚山 府使), 1659년에는 풍기 군수(豊基 郡守)로 나아갈 때 수령들이 잇달아 관청에서 죽으며 흉흉한 소문이 일자, “내가 그 자리에 나가지 않고서는 요망스러운 말을 없앨 수 없다”라고 말하며 부임하였다 한다. 수령이 된 뒤에는 교육을 장려하는 데 힘썼으며 가난한 선비를 도왔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1664년(현종 5) 강원도 도사(江原道 都事), 사예(司藝)를 두루 지냈다 이후 여러 관직에 제수되었으나 사직하고 거의 나아가지 않았다. 말년에는 주로 고향인 의성의 거처에서 후진 양성에 주력하였다.

[학문과 저술]

문집으로 3권 2책의 『고송집(孤松集)』이 전해진다. 『고송집』은 신홍망의 증손인 신진구(申震龜)가 1739년(영조 15)에 간행하였다.

[묘소]

묘는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풍리리에 있다. [상훈과 추모]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구미리에 1984년 후손들 주도로 건립된 고송 신 선생 유허비(孤松申先生 遺墟碑)가 있다.

고송집(孤松集)

정의

조선후기 문신 신흥망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739년에 간행한 시문집.

내용

3권 2책. 목판본. 1739년(영조 15) 증손 진구(震龜)가 편집, 간행하였다. 권두에 이광정(李光庭)의 서문이 있고, 권말에 권상일(權相一)의 발문과 진구의 후지(後識)가 있다.

규장각 도서에 있다. 권1·2에 시 255수, 권3에 소 2편, 제문 7편, 부록으로 행장·묘지명 각 1편, 서(序) 4편, 제문 2편, 만사 10수, 명 1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시는 영물·풍경·학문 등을 주제로 하여 순후하고 청고한 품격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회산봉한식(檜山逢寒食)」 3수는 16세 때 지은 것으로서 시상과 시관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여헌장선생문(祭旅軒張先生文)」은 장현광(張顯光)이 죽은 것을 애도하여 지은 제문으로서, 그가 학계와 국가에 이바지한 공적을 높이 치하하고 이황(李滉)의 뒤를 이어 우리나라의 이학(理學)을 발전시켰다고 칭송하였다.

신흥망(申弘望)의 자는 망구(望久), 호는 고송(孤松), 본관은 아주(鵝洲), 승지 신지제(承旨 申之梯)의 아들이다.

1627년(인조 5) 진사시에 합격하고, 1639년(인조 17)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뒤, 지평·정언·풍기군수 등을 역임하였다. 1652년(효종 3) 사헌부지평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도승지 이시매(李時樸)의 행동에 대한 시비(是非)를 가리는 과정에서, 당론(黨論)의 타파에 힘쓰지 못할망정 오히려 호당(護黨)한다는 탄핵을 받고 벽동(碧潼)으로 유배되었다가 두 달 뒤에 풀려났다.

1659년(효종 10) 풍기군수로 임명되었는데, 당시 풍기군에서는 부임하는 사람마다 연달아 관청에서 죽는 변고가 일어났다. 따라서 관료들 사이에서 풍기군수로의 부임을 꺼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신흥망(申弘望)은 전혀 개의치 않고 부임하여 학교를 일으키고 교육에 힘썼다.

《고송집(孤松集)》은 본집 3권에 부록 上下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권1에는 詩 108수(회산봉한식(檜山逢寒食) 외), 권2에는 시(詩) 132수(부소명도한강문체즉회정(赴召命到漢江聞遞卽回程) 외), 권3에는 소(疏) 2편(진정걸성소(陳情乞省疏) 외), 제문(祭文) 7편(제여헌장선생문(祭旅軒張先生文) 외), 부록 상권에는 통훈대부행사간원정언고송신선생행장(이광정 찬)(通訓大夫行司諫院正言孤松申先生行狀(李光庭 撰)), 묘지명(墓誌銘) 1편(권상일 찬(權相一 撰)), 부록 하권에는 시(詩) 4수(송완산반자부임소-김응조 작(送完山半刺赴任所-金應祖 作) 외), 제문(祭文) 2편(유원지(柳元之) 외), 만사(輓詞) 10편(유원지(柳元之) 외), 명(銘) 1편(낙선당명(樂善堂銘)), 문집후지(文集後識)(신진구 지(申震龜 識)) 등이 수록되어 있다. 신흥망(申弘望)의 증손 신진구(申震龜)가 지은 발문(跋文)에 따르면, 이고산(李孤山)선생이 신진구(申震龜)에게 증조부의 유고를 연물(煙歿)시키지 말 것을 충고하여, 유고 가운데 전할만한 것을 초선(抄選)해 두고 이선생(李先生)으로부터 서문을 받아 간행하려 했다.

그러나 이선생(李先生)이 갑자기 운명하여 문집 간행이 연기되고, 유고는 40여 년 동안 그대

로 방치되었다. 노년에 이른 신진구(申震龜)는 문집을 간행하지 못한 채 죽게 될 것을 염려하여 간행을 재추진하였는데, 증조부(曾祖父)의 유고를 들고 이광정(李光庭)을 찾아가서 와류(訛謬)된 부분을 수정받고 서문을 받았다. 그리고 그 해 친척들의 도움을 받아 ≪고송집(孤松集)≫ 2책을 간행하였다. 문집에는 간행시기를 '기미년(己未年)' 혹은 '노지십오년(之十五年)' 등으로 표기하고 있어 어느 왕대(王代)에 간행한 것인지 불분명하나, 신흥망(申弘望)의 사망(1673년) 이후 기미(己未)년으로 왕의 재위기간이 15년에 해당하는 시기는 1739년(영조 15) 뿐이다. 따라서 ≪고송집(孤松集)≫은 1739년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조선 후기의 문신 신흥망(申弘望)의 시문집. 3권 2책. 목판본. 1739년(영조 15) 증손 진구(震龜)가 편집, 간행하였다. 권두에 이광정(李光庭)의 서문이 있고, 권말에 권상일(權相一)의 발문과 진구의 후지(後識)가 있다.

권1·2에 시 255수, 권3에 소 2편, 제문 7편, 부록으로 행장·묘지명 각 1편, 서(序) 4편, 제문 2편, 만사 10수, 명 1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시는 영물·풍경·학문 등을 주제로 하여 순후하고 청고한 품격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회산봉한식 檜山逢寒食> 3수는 16세 때 지은 것으로서 시상과 시관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여헌장선생문 祭旅軒張先生文>은 장현광(張顯光)이 죽은 것을 애도하여 지은 제문으로서, 그가 학계와 국가에 이바지한 공적을 높이 치하하고 이황(李滉)의 뒤를 이어 우리 나라의 이학(理學)을 발전시켰다고 칭송하였다. 규장각도서에 있다.

신흘(申佺) 의병

이칭/별칭	구지(懼之), 성은(城隱)		
분야	역사/전통 시대, 성씨·인물/전통 시대 인물		
유형	인물/의병·독립운동가		
지역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팔성리		
시대	조선/조선 후기		
출생	1550년연표보기	출생	
활동	1 603년 『난중사적』 편찬		
	1608년 회퇴 변무소 상소		
몰년	1614년연표보기	사망	
성격	의병	성별	남
대표 경력	증 좌승지		

[정의]

조선 후기 의성 출신의 의병.

[가계]

본관은 아주(鵝洲). 자는 구지(懼之), 호는 성은(城隱). 아버지는 신원록(申元祿)이며, 의성(義城) 사람이다.

[활동 사항]

신흘(申僉)[1550~1614]은 아버지가 사망하자 삼년상을 마친 후 묘소 아래 집을 지어 '영모(永慕)'라는 편액을 달고 애도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는 영가 교수(永嘉教授)를 지냈다. 전쟁이 일어나자 형인 신심(申伸)을 도와 창의하였다. 의병을 일으키고 수 백 명을 모집하여 김해(金垓)·유종개(柳宗介)·정세아(鄭世雅)와 함께 왜군에 대항하여 전투를 하였다. 1603년(선조 36) 조정의 명으로 『난중사적(亂中事蹟)』을 편찬하였다. 1608년에는 종질인 신흥도(申弘道)와 함께 회퇴[회재 이언적, 퇴계 이황] 두 분의 변무소(辨誣疏)를 올렸다.

1611년(광해군 5)에는 정인홍이 국정을 농락하고 성현을 모함한 무현죄(誣賢罪)로 논핵하기도 하였다. 그 후로는 어지러운 세상에 나서지 않고 두문불출하면서 고요함을 지켰으며, 경전과 역사책을 보면서 스스로 즐기는 삶을 살았다. 아들 삼형제[신적도, 신달도, 신열도]를 잘 교육하여 충신, 정치인, 학자로 키웠으며, 이로써 의성 지역 명문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특히 읍파인 광부(光富) 계열이 중추가 되어 전성기를 열었다.

[저술 및 작품]

『난중사적(亂中事蹟)』을 편찬하였고, 유집으로 『성은일고』가 있다.

[상훈과 추모]

좌승지로 증직되었다. 사림에서 신적도, 신달도, 신열도 삼형제를 비롯하여 신적도의 아들 인재(忍齋) 신채(申埰) 부자를 단구 서원(丹丘 書院)에 배향하였다.

성은선생일고(城隱先生逸稿)

『성은일고』는 조선중기 학자인 신흘(申? ; 1550~1614)의 일고이다. 신흘의 자는 구지(懼之), 호는 성은(城隱), 본관은 아주(鵝洲), 아버지는 원록(元祿)이며 의성(義城)사람이다.

부친이 돌아가시자 삼년상을 마친 후 묘 아래 집을 지어 영모(永慕)라는 편액을 달고 애도하였다. 임진란에 의병을 일으키고 수 백 명을 모집하여 김해(金垓)·유종개(柳宗介)·정세아(鄭世雅)와 함께 일본군에 대항하여 전투를 하였다.

1603년 조정의 명으로 『난중사적(亂中事蹟)』을 편찬하였다. 1608년 홍도(弘道)와 이언적(李彦迪)을 위해 변무하였고, 1611년 정인홍(鄭仁弘)이 국정을 농락하고 성현을 모함한 죄를 논핵하였다.

